'국제시장' 800만명도 넘겨

메트로 2015년 1월 7일 수요일 제3130호 www.metroseoul.co.kr

태극전사 결전의 땅 밟다

코스피 16개월만에 최저치 코스피가 유가 급락과 그리스발 악재 충격에 전날보다 33.30포인트(1.74%) 떨어진 1882.45로 마감한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코스피가 1880선까지 내려간 것은 16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유가·증시 급락… 한국경제 경고등

WTI 장중 50달러 붕괴·코스피 1900 이하로
미 금리인상 가세 땐 우리 수출 전선에 직격탄

코스피가 국제유가 급락과 그리스 정정 불안 등 대외 악재에 1880선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더욱이 올 상반기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 금융위기, 4분기 기업실적 부진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칠 경우 우리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으로 우려된다.

6일 코스피는 개장초 1900선이 붕괴된후 전날보다 33.30포인트(1.74%) 급락한 1882.45로 마감,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코스피가 급락한 것은 국제유가가 장중 배럴당 50 달러선이 무너지고 그리스 정정 불안에 따른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 등으로 세계 주요 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지난 주말보다 2.65 달러(5%) 낮아진 50.04 달러에 마쳤다.

유가는 종가 기준으로 2009년 4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유가 급락 속에 뉴욕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86% 하락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1% 이상 떨어졌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의 주가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했다.

글로벌 국채 가격은 상승(수익률 하락)하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의 벤치마크 국채 지수인 글로벌브로드마켓소버린플러스인덱스(GBMSPI)가 지난 1996년 이후 19년만에 최저치인 1.28%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급락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유가 급락세가 장기화하면 러시아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미국 금리인상이 가세해 신흥국 금융불안이 고조된다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모두에서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상반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달러 강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투자 자금이 대거 미국으로 들어오고 국제유가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 국내 경제도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혼란이 불가피하고,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엔화 약세도 한국 경제의 골칫거리 중 하나다. 달러 강세와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로 엔화 약세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최근 아시아-태평양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엔화 약세, 유가 급변동 등 글로벌 악재가 한꺼번에 닥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기업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 않은 상태다.

백윤민 KB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지난 4분기 실적 시즌은 오는 8일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로 본격 시작될 전망이지만 기대감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올해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통화전쟁과 원유전쟁에 따른 파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1997년에 있었던 외환위기를 다시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대두됐다.

최근 한미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5년 아시아 및 세계경제 전망 세미나에서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일본과 유럽의 양적완화, 중국의 통화정책 완화가 슈퍼달러와 엔화 초약세로 대변되는 통화전쟁이 가열될 것"이라며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동남아 신흥시장국의 자본유출이 외환위기로 이어질 경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역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승호기자 min@metroseoul.co.kr

4~5년차 대리급 가장 선호

경력직 채용 상반기 집중

"인력 충원은 대리급이 와야 할텐데…"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미생'에서 오상식 과장의 대사다. 드라마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대리급 경력직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6일 기업 394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 정규직 경력사원 채용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56.4%의 기업이 '있다'고 답했다. '미정'이라는 26.9%, '채용 계획이 없다'는 의견은 16.8%였다.

선호하는 경력직 직원의 근속 연수로는 '4~5년차'(43.7%)가 가장 많았다. 이어 '3년차 이하'(36.9%), '6~7년차'(12.6%) 순으로 실무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대리급 직원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다. 신입을 새로 뽑아 업무 성과를 내기까지의 교육 여건과 시간이 부족한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은 상반기를 공략하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예정 시기에서 '상반기'(93.7%, 복수응답)가 '하반기'(52.3%)보다 2배 가량 많았기 때문이다. 채용 방식은 '수시'(78.4%)가 주를 이뤘다.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기준은 '직무 능력'(79.7%)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관련 자격증'(4.1%), '근속 연수'(3.6%) 등이 거론됐다.

사람인 관계자는 "과장급 이상은 관리직이고 대리급은 실무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어 경력직으로 가장 선호된다"고 말했다.

/황윤희기자 unique@

새정치민주연합 혁신 토론회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혁신 과제 '전당대회의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당혁신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오른쪽부터 우상호·남윤인순·유원식·조성준·박홍근 의원 /연합뉴스

정부부처 '군살빼기' 나선다

행자부에 혁신단 구성 고강도 구조조정 추진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큰 규모로 운영되는 정부부처의 군살을 빼는 고강도 구조 조정 작업이 올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정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정부 조직 구조 조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행자부는 정부 조직진단과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해 20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구조 조정 등 정부 혁신 분야 과제를 추진할 혁신단도 구성 중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 조직진단과 정원 조정은 부처 단위 분석을 거쳐 조정된 것이었다"며 "하지만 올해는 국가 혁신 차원에서 정부 조직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도와 필요가 감소한 부처의 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행자부는 연초부터 전(全)부처 조직진단을 거쳐 351명을 줄이기로 했지만 동시에 4113명 증원을 결정, 전체적으로 5억명을 늘렸다. 다만 매년 각 부처의 정원 1%를 감축하는 통합정원제 적용으로 974명을 줄여 결과적으로 400명을 감축했다.

앞서 정종섭 장관은 지난달 "정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현재의 구조와 규모가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이것이 행자부의 주요 업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현정기자 h@metroseoul.co.kr

농협, 양치기 소년 되지않으려면

기자 수첩
박아란 <금융시장부 기자>

이쯤되면 지난해는 농협의 삼재(三災)라고 볼 수 있을까.

지난 5일 농협은행 예금계좌에서는 거액의 돈이 예금주 몰래 인출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농협 예금통장을 보유한 A씨의 계좌에서는 예금 2000만원이 빠져나갔다. 또 예금주 명의로 카드가 재발급돼 280만원이 결제됐고, 카드론으로 300만원 대출까지 이뤄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농협측은 사고원인 조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농협 측은 피해액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농협은 지난해 6월에도 한 농협 예금주의 계좌에서 1억2000만원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연초에는 카드사 정보 유출사태에도 이름을 올렸고, 대포통장 최다기관이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모두 1년새 벌어진 일이다.

이에 농협은 대대적인 대포통장 근절 캠페인을 벌였고,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을 구축해 선보였다.

성과는 좋았지만 일련의 사고로 예금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아직 부족하다.

이는 농협 측도 인지하는 것으로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 역시 신년사를 통해 "카드 고객정보 유출사태로 고객의 마음은 질책과 원산시고 단골 금융기관이라는 오명을 들으며 지칫 사업기반이 송두리째 와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어 "앞으로 IT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고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농협금융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젠 말보다 실천을 해야 할 때다. 을미년 양의해에 거짓말을 하다 결국 외면받는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길 바란다.

여야 원내지도부 새해 첫 주례회동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6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北 조속히 남북 대화의 장 나와야"

박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은 조속히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 우리와 한반도의 평화정착,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실질적으로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을미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과거 남북 관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인데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을 잘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간 대화와 교류에 진전된 뜻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남북 당국간 회담이 열리면 양측 당국자간 한반도의 평화정착,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을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며 사실상 큰 틀의 의제까지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제 살리기와 관련, "국무위원들께서는 올해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는다는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한려수금 벌일자본 흐름이 막혀 있는 청년 고용시장, 보신주의에 젖어 있는 금융시장 등 우리 사회의 동맥경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北 핵무기 소형화… 美 본토 위협 수준"

국방부는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이번 백서에 따르면 북한군 병력은 국군의 2배 수준인 120만명으로 늘었고 전차와 장갑차, 방사포 등 지상전력과 전투함 등 해상 전력도 증강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 9개 장, 31개 절로 구성된 백서에는 북한군의 전력 변화, 동북아 안보상황, 한미동맹, 주변국과의 군사 외교 현황 등 우리 군의 활동과 주변국 군사 동향이 담겨 있다.

2년 전 발간된 백서에는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 "1990년대 이후부터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물질을 확보했고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2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언급됐을 뿐 기술적 평가는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백서에선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 핵무기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반영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넣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여야, 12일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선출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산하의 국민대타협기구를 7일까지 구성하고 서민주거복지특위도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옛 통진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의 전직 의원들이 자신들의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냈다.

통진당 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는 6일 옛 통진당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전 국회의원 5명이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새누리, 4월 보선 거물급 공천 배제하기로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따라 치러지는 4월 보궐 선거에 거물급 인사의 공천을 사실상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6일 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김문수 위원장이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의 공천은 당 차원에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역에서 활동해 온 인사들 중심으로 지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 한우까지 덮친 구제역

경기도서 4번째 발생… 2010년 악몽 되풀이 우려

축산 도시 경기도 안성의 소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인접 지역인 충북 진천 돼지농장에서 지난달 3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래 한달여만에 이천·용인 안성까지 전파되면서 지난 2010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안성시 죽산면 이모씨 농장의 한우 1마리에 대해 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구제역 발생 농가는 이천 장호원과 용인 원삼면 돼지농장 2곳을 포함해 모두 4곳이다.

지난달 29일 이천시 장호원읍 한 농장에서 돼지 20마리가 구제역 증상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이날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와 가재월리 돼지농장에서 각각 3마리와 20마리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해당 돼지를 살처분하고 축사 소독과 가축 이동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 감염 소가 발생한 안성의 해당 농장은 올겨울 들어 첫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진천 돼지농장과는 15~20㎞가량 떨어져 있으며 반경 500m 이내 6개 농가에서 한우 등 소 400여마리를 사육 중이다.

안성시는 해당 농장이 위치한 죽산면에서 소 3000여마리가 사육 중이어서 가축 이동통제·소독 등을 철저히 해 달라고 농가에 당부했다.

안성시는 150여 농가에서 돼지 29만여마리, 1900여 농가에서 소 10만여마리를 사육하는 대표적인 축산 도시로 지난 2010~2011년 구제역 파동 당시 돼지 20만6000마리와 소 1600마리를 살처분해 4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기업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부모님 업은 입영행렬 6일 경기도 양주시 육군 2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의경 장정들이 부모님을 업고 입영식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3월보충대 해체 후 이날 경기지역 직접 입영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세 모녀의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현장감식요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서초 세 모녀 살해’ 40대 가장 검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뒤 도주했던 강모(48)씨가 6일 낮 12시 10분께 경북 문경시 농암면 종곡리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낮 혼다 어코드 차량을 타고 농암면 인근 국도를 지나다 농암파출소 소속 순찰차와 맞닥뜨렸다.

순찰차는 즉시 유턴했고, 1㎞가량 뒤쫓은 끝에 차량 앞을 가로막고 강씨를 검거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6시 28분께 충북 청주에서 휴대전화로 스스로 범행을 119에 신고한 뒤 고속도로를 따라 경북 상주를 거쳐 문경까지 달아났다.

전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강씨의 아내(48)와 큰딸(14), 작은 딸(8)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강씨를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송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시신에서 별다른 저항 흔적을 찾지 못했으며 범행 현장에서 강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노트 2장을 발견했다.

강씨는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모 시중은행에서 5억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송주원기자

‘회삿돈 횡령’ 코코엔터 대표 지명수배

경찰이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해외로 달아난 코코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를 검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코코엔터테인먼트 김우종 공동대표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해외로 도피한 김 대표가 귀국할 경우 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

앞서 코코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8일 김 대표에 대해 수년간 회삿돈 수억원을 기로챈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코코엔터테인먼트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하며 정확한 횡령 규모를 산출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외 출국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명수배와 함께 해외로 도피한 김 대표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 수사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

코코엔터테인먼트는 인기 개그맨 김준호가 공동 대표를 맡은 국내 유일한 개그맨 전문 연예기획사로, 이국주, 김준현, 김대희, 김원효, 박지선, 김영희 등 4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유주영기자

“방산업체 특혜… 6000억원대 예산낭비”

감사원 조사결과 발표

방산업체에 대한 각종 특혜와 부실한 관리·감독이 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비리 구조까지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방위사업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모두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자동지시품연구원과 국방기술품질원 조사결과 1317개 방산물자 중 237개 품목이 경쟁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품목에 대해 2009~2013년 방산원가로 계약해 낭비된 예산이 최소 3018억원에 달했다.

방산물자의 투명한 조달을 위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 등 법적절차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지정한 449개 방산물자 중 407개를 심의 과정이나 사장 선석 없이 방산진흥국장 전결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 원가를 적용할 경우에 비해 2년간 451억원을 추가로 지급했고 일반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도 제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사청은 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업체가 생산시설 없이 방산물자를 하도급·외주 생산하는 것을 방치하다 적발됐다.

5개 방산대기업이 2012~2013년 경영노력 보상비 1333억원 중 76%인 1016억원을 챙겼다. LIG넥스원의 경우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 계약을 통해서만 153억원의 경영노력 보상비를 받았다.

/유주영기자 boss@

경찰특공대·소방공무원 수당 올린다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특공대와 해군 UDT(특수전전단)·SSU(해난구조대) 등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특공대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급별로 월 4만~6만5000원씩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계급 구분 없이 8만원으로 인상한다.

특전사와 해병대, 해군 UDT·SSU 등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군인은 재난구조와 대테러 대응을 비롯해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로 출동할 경우 1일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화재진화수당을 받는 소방공무원은 인명구조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할 때마다 1일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받는다. /송주원기자

“학자금 대출, 저금리로 바꿔 드려요”

한국장학재단, 제4차 전환대출 5월까지 시행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4차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5월까지 시행한다.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수혜 대상자는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아 잔액을 보유한 채무자다.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을 활용하면 고금리대출(최고 7.8%)이 신청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수준(15년 2.9%)으로 인하되고, 현재 원금상환 중이더라도 거치기간 최장 3년·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상은 2006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학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사람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과거 시중은행에서 받은 정부보증학자금도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신청기간은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은 5월 종료되며 반드시 기한내 신청해야 한다. /유주영기자

승객은 어디가고 좌석만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 요원들이 5일(현지시간) 자바해에서 수거해 온 해군 헬기편으로 팡카란분 공항에 도착한 에어아시아 8501기의 좌석 잔해들을 옮기고 있다. 이날 수색 당국은 에어아시아 여객기 꼬리로 추정되는 동체를 발견해 블랙박스 확인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중-일 '센카쿠 협의' 재개

2년 7개월 만에 진행

중국과 일본이 다음 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사진)열도 주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양쪽 당국자 간 협의를 재개한다.

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양국은 오는 13일 또는 14일 도쿄에서 과장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1월 중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센카쿠 주변 해상과 상공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해상연락 메커니즘'을 조기에 운용하자는 취지다.

중국 정부는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협의 요구에 불응했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가 연말까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협의에 응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해상연락 메커니즘을 둘러싼 중일간 논의는 2012년 6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앞서 양측은 당국 간 정례 회의 개최, 간부급 당국자 간 핫라인 설치, 양국 함정과 항공기 등 현장에서의 직접 통신 수단 설치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정부가 센카쿠 국유화를 단행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 협의가 중단됐다.

중국과 일본은 다음 주 기존 합의 사항을 확인하고, 양측 간 직접 통신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女染吃化妝品怪癖

밥 대신 화장품 먹는 여자

metro HongKong

중국 산둥성 신나이(新泰)시에 살고 있는 샤오자오(小趙)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있다. 바로 화장품을 먹는 버릇이다.

그는 평상시 화장품을 먹으면 보통 다섯 스푼 정도를 먹고 먹을 때 매우 흥분 상태가 된다. 밥도 먹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서 화장품만 먹는다. 샤오자오의 어머니는 딸이 다단계에 빠졌거나 마약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걱정했다.

이상한 습관이 알려진 뒤 지난해 10월 말 그는 방송국의 도움으로 지난(濟南)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의사는 그의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파악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로 식욕이상의 일종인 이식증(異食症)으로 진단을 내렸다.

병원에서는 그의 경제적인 상황과 부모가 계속 병간호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무료로 치료해주기로 결정했다.

두 달이 지나고 샤오자오는 얼마 전 드디어 퇴원을 했다. 샤오자오는 "현재 몸이 많이 좋아졌고, 화장품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다. 잠도 잘 자고 밥도 먹는다"고 말했다.

퇴원을 위해 병원을 찾은 샤오자오의 어머니는 "딸이 살도 좀 찌고 생기가 돈다"며 미소를 지었다.

주치의인 마펑성(馬鵬生)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거의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정리=조선미기자

결혼증명서 '받았어!' 미국에서 36번째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플로리다주에서 동성애자인 토드(왼쪽)와 제프 델마이가 5일(현지시간)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로부터 플로리다 최초로 결혼 증명서를 받아들고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교황 자동차가 단돈 1만3000원

바티칸 '자선 로또' 화제

교황 자동차를 단돈 10유로(약 1만30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미국 CNN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난한 이웃을 위한 모금 활동을 위해 이같은 복권행사를 연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행사에는 1등 상품인 이탈리아 피아트의 소형차 '판다'를 비롯해 자전거, 카메라, 에스프레소 머신, 가죽가방, 시계·중절모 등 교황이 전 세계 신자들로부터 선물 받은 13개 물품이 상품으로 나왔다.

당첨되지 않은 이들을 위한 30여 개의 '위로 상품'도 준비됐다.

복권 비용은 10유로에 불과하다. 그러나 온라인으로는 살 수 없고 바티칸에서 구입해야 한다.

당첨자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익금은 전액 교황이 후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된다. /미국메트로

독도는 복원하고 일본해는 그대로

미 CIA 오락가락 행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삭제했던 독도의 미국식 표기인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를 하루 만에 복원한 것으로 확인돼 그 이유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6일 CIA 홈페이지에 게재된 '월드 팩트북(국가정보보고서)' 한국편 지도를 살펴보면 리앙쿠르 암초는 한국편 지도와 일본편 지도에 모두 등장한다. 전날까지만 해도 리앙쿠르 암초는 한국편 지도에는 없고 일본편 지도에만 등장해 논란을 빚었다.

CIA는 우리 외교 당국에 월드 팩트북 수정 과정에서 기술적인 실수로 한국편 지도에 리앙쿠르 암초를 누락했다고 해명하면서 즉각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월드 팩트북(국가정보보고서)' 한국편 지도. 지난 4일(현지시간) 공개된 한국편 지도(왼쪽)에서 사라졌던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가 5일 수정 공개된 한국편 지도(오른쪽)에서는 복원돼 있다.

하지만 CIA는 동해의 명칭을 이전과 같이 여전히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표기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독도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 측의 지속적인 로비 때문에 CIA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관측은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한편 월드 팩트북은 세계 주요 기관들이 국가정보 인용 때 기본 잣대로 활용하는 자료다. CIA는 최근 각종 정보를 수정해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미국메트로 kmkooo

"스펙보다는 직무적합 역량 쌓아라"

4대 취업포털 CEO 전망

신입 채용 줄고 경력 증가 추세
'창의인재' 선호 계속 확산 전망
연봉 집착말고 몸값부터 높여야

"직무적합성·창의적 전문역량을 강화해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2015년 을미년을 맞아 메트로신문이 국내 4대 취업포털 CEO들에게 올 한해 취업시장 전망에 대해 물은 결과, 이같은 조언이 쏟아졌다. 사상 최악의 '취업절벽'이 거론될 정도로 신입 시장이 위축될 전망이기 때문에 대졸 신입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당장의 취업이 아닌 1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커리어를 관리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충고가 이어졌다.

/이국명기자 lantiee@metroseoul.co.kr

김화수 이정근 이광석 강석린 대표, 왼쪽부터

◆공공기관 경력 채용 주목

취업포털 대표들은 올 신입 취업시장에 대해 지난해보다 더 어둡게 내다봤다.

김화수 잡코리아 대표는 "올해 취업준비생이 역대 최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신입직 취업시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며 "경기가 극적으로 반전하지 않는 한 취업시장의 확대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이정근 사람인 대표도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입 채용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 역시 "기업 이익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에서 신입 채용을 늘리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력직 시장에서 훈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광석 대표는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 경력직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들 역시 민간 경력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화수 대표도 "최근 기업인사담당자 2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입이 필요하다는 대답은 18.1%에 불과한 반면 경력 1~3년차를 원하는 인사담당자는 56%에 달했다"며 "기업들이 경력을 선호하는 경향은 더욱 짙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 창업 열기 뜨거워

취업 유망 기업군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김화수 대표는 "생산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동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장품 게임분야의 인력 수요가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광석 대표는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전기전자 업종에서 채용 소식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근 대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규제철폐와 지원에 나서고 있는 신생 벤처기업인 스타트업 채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난 한달 사이만해도 160여개의 스타트업이 탄생할 정도로 창업 열기가 뜨겁다"고 지적했다.

◆일관성있는 경력관리 중요

취업포털 대표들은 올해 주목해야 할 취업 트렌드로 '직무적합성' '인문학' 등을 한목소리로 꼽았다.

강석린 커리어 대표는 "최근 기업은 모든 것을 잘하는 인재보다는 특정 직무 관련 역량이 뛰어난 '창의인재'를 선호하고 있다"며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 미리 경험해보고 이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근 대표도 "삼성그룹을 비롯해 직무적합성을 강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무의미한 어학연수, 자격증 개수 늘리기 등에 정력을 낭비하기보다는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인턴십 아르바이트 등의 경험을 쌓아 연봉이 아닌 몸값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화수 대표는 "창의력·감성·상상력을 지닌 인재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만의 브랜드 만들어야

구직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진심어린 조언도 이어졌다.

이광석 대표는 "일관성 있는 경력관리와 효율적인 시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어떻게 나를 최고로 만드는가'(리드 호프만, 벤 카스노카 저)라는 책에 소개된 것처럼 스스로 창업하는 마음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강석린 대표는 "마음먹은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찾는 자신감이 중요하다"며 "'이카루스 이야기'(세스 고딘 저)를 읽으며 스스로 만든 한계의 틀을 깨고 나와 현실과 맞설 용기를 갖추라"고 강조했다.

취업포털 대표들의 쓴소리도 귀를 번뜩이게 했다.

김화수 대표는 "졸업을 앞둔 대학 4학년생들조차 지원한 직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직무 중심으로 취업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정근 대표도 "꿈을 크게 가지는 것과 단계를 무시하고 단번에 오르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처음부터 연봉 복리후생 등을 잘 갖춰진 기업을 찾는 것보다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서 목표에 맞춰 성장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소기업 취업문 닫힌다

10곳 중 6곳 계획 없어

소기업 10곳 중 6곳이 경영난으로 올해 채용 계획을 못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대 광역시와 수도권에 있는 소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도시형 소공인 경영현황 및 애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0%가 경영 상황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가 좋다고 답한 소공인은 4.7%에 그쳤다.

경영상 가장 어려운 분야는 운영자금 조달(64.8%)이 거론됐다. 조달 상황이 나쁘다고 답한 기업은 47.4%로 절반에 육박했다.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는 원자재 구매(55.0%)였다.

이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인력 충원을 못하는 기업이 10곳 중 6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채용 계획과 관련해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65.8%로 신입을 선발하겠다는 기업(34.2%)보다 2배가량 높았다. 인력을 채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인건비 부담(41.7%)이 뽑혔다.

한편 소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자금 지원(62.9%)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제 지원(21.2%), 인력채용 지원(9.1%), 경영자문과 컨설팅(4.0%) 지원 순이었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도소매업 위주의 소상인에 집중됐다"며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소공인의 경영실태를 파악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미 최기자

아침 먹고 출근하자! 모스버거가 6일 서울 모스버거 ...점에서 직장인 ...으로 모닝 세트를 무료로 증정하는 '아침 먹고 출근하자!'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는 ...까지 진행되며, 매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선착순으로 전달한다. /모스버거 제공

잡코리아 '웰던투 공모전 페이지' 오픈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공모전 서비스에 소셜 기능을 더한 '웰던투 공모전 페이지'를 열었다.

잡코리아는 새해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공모전 서비스에 포트폴리오 서비스 '웰던투'를 결합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공모전에 관심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프로필과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모전 주최사는 지원자 인적사항을 보며 직접 아이디어 제안을 할 수 있고, 공모전 참가자들은 실력있는 팀원을 모집하는 효과를 얻는다.

자세한 내용은 웰던투 공모전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모바일 전용 페이지는 이번달 중 서비스된다. /잠윤희기자

진짜 실력있는 대학생을 위한 공모전사이트 런칭!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1882.45 (▼33.30)	558.90 (▼2.35)
금리	**환율**
2.08 (▼0.04)	1039.00 (▼11.70)

새해 첫주 로또, 11년만에 최대

복권통합수탁사업자 나눔로또는 연초 '대박'을 바라는 복권 구매 열기로 새해 첫 주 로또복권 판매액이 553억원으로 11년 만에 최대액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

올 주택 가격 2.3% 상승

한국감정원은 6일 '2015년 부동산시장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 보다 2.3%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체 주택 평균보다 다소 높은 2.9~3.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반적인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잠정치인 100만건에 비해 8% 정도 늘어나 주택 매매시장이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했다.

감정원 채미옥 부동산연구원장은 "올해 주택시장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와 재건축 투자 수요,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이주완료 등의 재료를 바탕으로 매매가격과 거래량 모두 전국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임대시장(전세)은 전국 기준 2.2%, 수도권은 3.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주택의 월세 전환 등 임대시장 구조 변화와 재건축 이주수요 확대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토지시장은 대체로 주택시장의 회복과 경기 호전으로 지난해(잠정치 1.94%)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세를 예상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잇단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가족구성원 확장기에 있는 40~50대 대형주택 구매가 늘었지만 소형주택이 주 시장층인 30대와 30대 이하 자층의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주희기자 kjh@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 빌딩 2층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님궁르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최세준
광고문의 02)721-9854·3
독자센터 02)721-9801
2002년 5월 31일 창간 일간 서울특별시 가00026

단통법 3개월, 서서히 안정화 찾아

일 평균 가입자 6만명…법 시행 이전보다 높아져

종합상사 회사인 원인터내셔널에서 근무하는 김 대리는 외근이 잦아 휴대전화로 통화가 많다. 지금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3년간 이용한 김 대리. 마침내 휴대전화를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현재 A이동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는 김 대리는 통신사를 바꾸면 휴대전화 교체에 있어 비용이 유리한지, 기기변경을 하면 유리한지 발품을 팔아가며 정보를 찾았다. 김 대리는 과거 발품을 팔면 공짜폰을 찾던 시절과 달리 최근엔 공짜폰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면서 결국 중고폰을 구입해 기기변경을 신청했다. 중고폰을 이용해 기기변경을 신청하자 김 대리는 12%의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자율 통신시장이 안정화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당초 단통법의 목표인 가계통신비 인하도 어느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단통법 시행 3개월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가입자는 6만57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9월 월평균 가입자 수(5만8363명)보다 증가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0월 일평균 가입자수는 3만6935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11월 5만4957명, 12월엔 6만명을 넘어서면서 시장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 유형에 변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만하다. 단통법 시행 이후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없어져 번호이동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기변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전 26% 수준에 불과했던 기변 가입자는 법 시행 이후 40%를 넘어섰다. 기변 가입자 비중의 증가에는 위 김 대리의 사례처럼 휴대전화 보조금을 받지 않고 기변을 할 경우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한몫했다.

소비자가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도 4만5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내려갔다. 이는 높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켜 3개월 이상 유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 영향이라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알뜰폰은 꾸준히 반사이익을 얻으며 호재를 보이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현재 458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7.9%를 기록했다. 알뜰폰은 이통3사와 동일한 통신품질,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워 올해도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 단통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높은 것도 사실이다. 휴대전화 제조사가 출고가를 인하하고, 이통3사는 공시 지원금을 점차 늘리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가계통신비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서히 단통법이 통신업계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며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라면서도 "아직 단통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많은 만큼 국민의 목소리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좀 더 완벽한 법안으로 발돋움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창업·혁신하려면 규제부터 줄여라

규제가 한 단계 줄면 창업·혁신 욕구는 5단계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6일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경제학회(AEA)·한미경제학회(KAEA)와 공동 개최한 초청포럼에서 "경제성장과 규제개혁" 주제발표를 통해 규제개혁이 기업가 정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규제경감도 지수와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경감도 지수가 1점 높아지면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가 5.2점 상승했다.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는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GEDI)가 매년 120여개국을 대상으로 창업, 창의 교육, 사회적 환경, 금융환경 등을 평가한 결과로 지수가 높을수록 창업과 혁신, 나아가 경제활성화가 쉽게 이뤄진다.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제조업 규제 지수 분석 결과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규제지수를 1.6점 미만으로 개선한 반면 우리나라는 1.88점으로 30개국 중 이스라엘 2.16점 다음으로 높았다.

/박상훈기자 zzo@

잦은 한파 채소값 급등 잦은 한파와 폭설 탓에 추위에 약한 상추와 시금치, 대파 등을 중심으로 채소값이 오르는 가운데 6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채소를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그룹, 2018년까지 81조원 투자

R&D는 31조원 규모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이 완성차 품질 경쟁력 향상, 미래성장동력 확충, 브랜드 가치 제고, 자동차 중심의 그룹사 간 시너지 극대화 등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총 8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4년 동안 공장 신·증설 등 생산능력 확대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IT 인프라 확충 등 시설투자에 49조1000억원, 연구개발(R&D)에 31조6000억원 등 총 80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친환경자동차와 스마트 자동차 등 미래차 관련 핵심기술을 집중 확보함으로써 해당 분야 업계 리더로 도약할 방침이다. 또한 설비투자 및 글로벌 생산능력 확대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성장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고성형 초강도강, 특수강, 경량화 소재 등 첨단 신소재 개발 역량을 고도화하고, GBC 투자로 브랜드 파워의 혁신적 향상을 위한 토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건설·물류 등 자동차 연관분야 투자를 늘려 자동차를 중심으로 그룹사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체제 구축도 강화한다. 현대차그룹이 2018년까지 집행할 총 투자액을 기간으로 나누면 연평균 투자액은 20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이전 최대 투자액이었던 2014년 14조9000억원보다 35%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올해 우리나라 정부의 전체 R&D 예산 18조9000억원을 1조원 이상 상회하는 규모다.

◆4분의 3 국내에 집중

현대차그룹의 향후 4년 동안 투자는 국내에 집중된다. 국내에 투입될 금액은 전체 투자 계획의 76%에 달하는 61조2000억원이다. 생산·판매 체제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 공장 신·증설 및 IT 강화 등 기반시설 투자, 보완투자, GBC 건설 등 시설투자에 34조4000억원, 제품 기술개발 등 R&D에 26조8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현대차그룹의 2018년까지 투자액 중 4분의 3가량이 국내에서 집행됨에 따라 국가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은 전체 투자액의 85% 이상인 68조9000억원을 자동차부문에 투입할 예정이다. 중국, 멕시코 등 성장시장에 공장을 신설해 현지 전략차종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울산, 화성, 서산 등 국내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엔진과 변속기 등 파워트레인 생산능력을 크게 늘리고, 차세대 파워트레인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도 단행한다. /양성운기자 ferrari@

금융상품 만기 수령액 모른다

25~35세 직장인 조사

25~35세 젊은 층에서 본인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만기 수령금액을 모르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삶에서 일탈을 꿈꾸는 사람도 전체의 3분의 2를 넘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6일 최근 출시한 '(무)꿈꾸는e저축보험'의 출시 배경이 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만 25~35세 남녀 1000명 직장인을 대상으로 '꿈과 꿈의 실현을 위한 재테크 "저축 성향"'에 대한 것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의 만기 수령 금액을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6.8%가 '모른다'고 답했다.

현실적인 장벽도 높았다. 응답자의 54.7%가 저축 상품을 중도에 해지한 경험이 있었으며, 중도 해지의 가장 큰 이유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48.4%)'를 꼽았다. 특히 저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기 납입에 대한 부담(23.9%)',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23.2%)', '저축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19.8%)'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현재 삶에서의 일탈을 꿈꾸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68.1%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가장 직장을 그만 두고 싶은 순간'에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인 34.1%가 '일이 재미가 없을 때'를 꼽았다. 이어 '직장 내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26.5%)', '매일 계속되는 야근에 지쳐가 상실될 때(13.1%)', '상사가 괜한 히스테리로 트집잡을 때(12.0%)' 등의 답변이 있었다. 기타 답변으로는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일 시킬 때', '연차 쓰는데 눈치 줄 때' 등이 있었다.

현실과 상관없이 이루고 싶은 미래의 꿈을 묻는 질문에서는 '세계일주(32.8%)', '내 집 마련(27.1%)', '창업(16.8%)' 순으로 많은 응답을 받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금액은 최소 '1억원에서 3억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2%, 이 꿈을 위해 '10년 이상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응답이 32.9%로 가장 높았다.

박정원 라이프플래닛 마케팅팀장은 "꿈을 간직하고 있는 2535 직장인들에게는 원금 손실에 대한 불안을 없애면서도 꿈의 성취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금융상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프플래닛은 지난 1일 '(무)꿈꾸는e저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국내 업계 최초로 '경과이자 비례방식'을 적용해 언제 해지해도 100% 이상 환급 받을 수 있다. /김형석기자 khs84@

'신한미래설계' 월납계약 100억원↑

신한생명은 지난해 출시한 '신한미래설계' 시리즈가 9개월 만에 월납계약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누적 판매건수로도 3만7000건을 넘어섰다.

'신한미래설계' 시리즈는 지난해 2월 2종(참신한브릿지연금보험, 미래설계참신한브릿지변액연금보험)의 연금보험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4월 '신한미래설계종신보험', 3월 '신한미래설계연금보험'을 각각 출시했다.

'신한미래설계연금보험'의 경우 자동 분할지급(Auto Share) 서비스, 브릿지 기능, 노후행복자금 등 다양한 옵션기능을 갖추고 있다. '신한미래설계종신보험'은 은퇴 후 소득공백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개시 후 10년간 가입금액의 4%를 생활자금으로 가급한다.

'미래설계참신한브릿지변액연금보험'은 투자형상품으로 브릿지형을 선택하면 브릿지 기간 동안(1년 ~ 20년 중 선택) 최대 500%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고객에게 최적의 은퇴설계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신한미래설계'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라며 "은퇴설계 트렌드 변화를 정확히 읽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대출 연체이자율 2% 인하

은행권, 최고 상한선 연 15%로 제한

내달부터 은행들의 대출 연체이자율이 인하돼 최고 이자율이 연 15%로 제한된다.

저금리 장기화로 시중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외환 등 국내 은행들과 스탠다드차타드(SC)·씨티은행 등의 외국계은행들은 현재 연 17~21%에 달하는 대출 연체이자율을 다음달 일제히 인하하기로 했다.

하나·신한·우리·외환은행 등 4개 은행은 최고 연체이자율을 연 17%에서 15%로 낮춘다. 이들은 연체 기간별로 대출금리에 일정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부과하는데 그 가산금리도 이번에 내렸다.

1개월 이하 연체의 경우 대출금리에 7%포인트, 1~3개월 연체는 8%포인트, 3개월 초과 연체는 9%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부과했는데 그 가산금리를 각각 7→6%포인트, 8→7%포인트, 9→8%포인트로 낮췄다.

국민은행의 경우 최고 연체이자율이 다른 은행보다 다소 높은 연 18%였는데 다음달부터 연 16%포인트로 낮춘다. 씨티은행은 최고 연체이자율을 기존 연 18%에서 연 16.9%로 낮출 방침이다.

SC은행도 최고 연체이자율을 낮춘다. 가계 신용대출의 최고 연체이자율을 연 21%에서 연 18%로 인하한다. 그러나 가산금리는 현행 9~10%포인트를 유지하는 등 가산금리 자체는 건드리지 않아 대출자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다.

이번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전반적인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도 있다.

기업은행은 2013년부터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최고 연체이자율을 각각 11%포인트로 낮췄다. 하지만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38%, 기업대출은 0.78%로 은행권 최하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연체 관리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평균 0.62%, 중소기업대출은 1.22%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최고 연체이자율이 연 11%인데도 연체율 관리에 성공했다는 것은 다른 은행들도 연체이자율을 그만큼 낮출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출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대출상환수수료 인하에 대해 은행들이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대출자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출상환 수수료 인하 방안을 2013년 말부터 추진했지만, 1년 동안 은행들은 검토만을 거듭하고 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중국 무역거래 기업 송금은 IBK로
IBK중국 快低(콰이디) 무역대전 송금
• 환율 50% 자동우대
• 3회 송금 시 4회차 송금수수료 면제
IBK기업은행

'IBK 중국 콰이디 무역대전 송금' 서비스 IBK기업은행은 6일 무역대금의 위안화 결제 수요를 반영한 'IBK 중국 콰이디 무역대전 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율 50%가 자동으로 우대되며 3회 송금시마다 다음번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기업은행 제공

"채권은행, 동부건설 협력사 압박 말라"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다.

6일 동부건설 채권단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17개 시중은행 대표이사에게 이번 여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협력 중소기업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이 공문에서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자금 애로가 우려된다며 협력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행위를 금지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상적인 동부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대출 한도를 줄이는 행위,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 대상 행위로 규정했다.

해당 기업 법인카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금융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동부건설과 거래 비중이 큰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에 착수하면서 협력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채권은행의 만기 연장 거부나 추가 담보 제공 요구 등 부적절한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신용위험평가 대상은 채권은행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한 동부건설 협력 업체 중 현재 매출채권 잔액에서 동부건설 매출채권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기업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B등급(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에는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신규 자금 지원이나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 금융 지원책을 제시하고 공동 지원이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예정이다.

만약 동부건설과 거래 비중이 높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C등급)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들어간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채권은행에 협력업체의 도산 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동부건설 회생계획안에 따라 협력업체가 회수할 수 없는 예상금액을 산출해 이금 담보로 운영자금도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박미선기자 alive0203@

전문보험사 설립요건 완화…실효성 '의문'

자보 전업사 실적 저조 종합보험사로 변경 추세

Issue&View 전문보험사 안착 '가시밭길'

/김형석기자 khs840419@metroseoul.co.kr

금융당국이 여행자보험 등 전문화된 특정상품만을 판매하는 전문보험사의 설립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내에서는 이들 전문보험사의 시장 안착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 인가제도를 변경해 특정 보험만 판매하는 전문 보험사가 설립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행보험사를 설립하려면 여행자보험과 관계된 상해(자본금 100억원), 질병(100억원), 도난(50억원), 배상보험(50억원) 등 4가지 보험종목에 대한 인가를 전부 취득하려면 무려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이는 종합손해보험사 설립요건과 맞먹는다.

여행자보험만 판매하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다 보니 전문 보험사의 등장이 힘들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의 경우 직접적으로 전문보험사 설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며 "이번 인가조건 완화로 포화상태에 이른 보험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전문보험사의 설립과 국내시장 안착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전문사의 최근 영업악화는 대표적인 사례다.

온라인 자동차 전업 보험사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가 10년 만에 모회사인 현대해상으로 흡수 통합된다.

통합의 가장 큰 원인은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다. 현대하이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보 외에도 운전자보험 등 스스로 전문보험사를 포기하고 실적개선을 꾀했지만 결국 올 상반기까지 통합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더케이손해보험은 최근 치매와 간병 등에 대비하는 보장성 상품을 출시하는 등 자보 비중을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AIG손해보험은 최근 보장성 상품에서 벗어나 저축성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등 보험사들이 최근 상품분야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업계가 저금리 기조 유지와 정보유출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일 판매채널과 단일 상품으로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업보험사에서 종합보험사로 전환하는 곳이 많다"며 "전업보험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사들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영업망을 확보하면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암 사망 10명 중 7명 보험 안들어

생명보험금도 1인 평균 2800만원 그쳐

암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암 사망자는 7만3000명에 달하지만 이중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31.5%인 2만3000명에 그쳤다.

연령별 암 보험금 수령액도 큰 차이를 보였다.

20~40대 암 사망자는 각각 1인당 평균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다. 50대도 평균 75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60세 이상 암 사망자가 지급받은 암 관련 보험금은 1인 평균 2800만원으로, 60세 미만(8900만원)의 31.4%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60대 이상 사망자가 암 진단비·수술비·입원비·사망 등 4개 담보 가운데 받은 1인당 담보는 평균 2.2개로 60세 미만의 3.2개보다 평균 1개가 적었다.

60세 미만은 4개 담보를 모두 받은 비중이 51.1%로 가장 높았으나, 60세 이상 고령자는 한가지(사망) 보험금만을 수령한 비율이 43.8%에 달했다.

또 60세 미만 전체 암 사망자 10명 중 6명 이상(61.9%)이 보험금을 수령했지만 60세 이상은 10명 중 2명 남짓(21.7%)만이 보험 혜택을 입었다.

전체 암 사망자 중 보험금 수급자 비율은 40대와 50대가 각각 67.7%로 가장 높았다. 60대는 43.0%, 70대는 18.7%였다.

이처럼 60세 이상의 암 보험금 수령액이 60세 미만보다 크게 낮은 것은 고령층이 암보험 자체를 유지하거나 암 관련 보장을 적게 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암보험의 경우 가입 4년 정도가 지나면 유지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10년이 지나면 10%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암은 대개 고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치료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사진 왼쪽부터) 김은규 농협선물 사장, 이태재 NH-CA자산운용 사장, 김학현 농협손해보험 사장, 나동민 농협생명보험 사장,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주하 농협은행 은행장, 김원채 우리아비바생명 사장,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 김윤식 농협캐피탈 사장, 김승희 NH저축은행 사장이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윤리경영 실천을 서약했다. /농협금융 제공

"올해 경영 키워드는 수익성·윤리경영"

농협금융, 실천 서약

NH농협금융이 올해 경영전략으로 '수익성 개선'과 '윤리경영 실천'을 내놨다.

6일 농협금융은 이날 서울 농협은행 본관에서 임종룡 회장과 김주하 은행장 등 자회사 CEO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임종룡 회장은 "명실상부한 4대 금융그룹으로 도약한 농협금융의 위상과 농업·농촌을 위한 수익센터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필요하다"며 올해 경영 키워드로 '수익성 개선'을 선언했다.

임 회장은 또 "자산운용 경쟁력 강화와 시너지 성과 창출,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농협금융의 모든 역량을 수익성 개선에 우선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직원을 선정하는 '농협금융인상'과 업무성과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분야에서 남다른 실적을 보인 직원에게 수여하는 '사회공헌상' 시상식도 열렸다.

'농협금융인상'은 성과 중심의 문화를 확산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대상은 농협은행 권성연 계장에게 돌아갔으며 모두 7명의 우수직원과 특별상 2개 단체도 수상했다.

권 계장은 유일에도 비슷 등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으로 창의적 1인 마케팅을 실시해 신용 카드 세일즈 우수직원에 선정된바 있다.

'사회공헌상'은 사회공헌 대표 금융기관인 NH농협금융 임직원의 사회공헌 문화를 확산시키고 우수직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부문에서는 20여년간 꾸준한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을 실천해 온 농협은행 문대식 지점장과 지역주민을 위해 17년간 야학 수학교사로 활동해 온 농협생명 서삼진 차장 등 2명이 선정됐다.

단체부문에서는 '울산농협 사랑나눔봉사단'과 'NH투자증권 임직원 봉사 동호회인 예분어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NH카드·증권 'CMA체크카드' 출시

NH농협카드는 6일 NH투자증권과 손잡고 'NH투자증권 CMA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NH농협카드가 NH투자증권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NH채움체크카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혜택으로는 문화서비스(영화, 커피, 서적) 10% 할인과 농협판매장(하나로 마트 등) 채움 포인트 5% 적립이 주어진다. 또 NH-Oil 주유소와 GS칼텍스 주유할인, 외화환전수수료 환율할인 서비스도 제공된다. 아울러 건당 2만원 이상 매출건에 대해 SMS 비로할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는 NH투자증권 CMA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가까운 NH투자증권 영업점에서 즉시발급 가능하다.

/백아란기자

국민생활의 힘! KB국민카드
「해외직구 쇼핑몰」 신년맞이 이벤트 실시
KB국민카드

'해외직구 쇼핑몰' 신년맞이 행사 KB국민카드는 6일 해외직구 쇼핑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신년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쇼핑몰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가능한 몰인몰(Mall-in-Mall) 형태의 특화 쇼핑몰로, 아마존과 이베이 등 180여 개 유명 해외쇼핑몰 이용이 가능하다. /KB국민카드 제공

사진으로 보는 'CES 2015'

LG전자 신제품 '스타일러' 공개 LG전자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에서 의류관리기 '스타일러'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모델이 LG전자 전시부스에 전시된 스타일러를 체험해 보고 있다. /LG전자 제공

현대차 미래 자동차 기술 대거 선보여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에서 첨단 자동차IT 분야 신기술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관계자가 미래형 인포테인먼트 전시물을 시연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삼성전자 윤부근 대표 기조연설 삼성전자 CE부문장 윤부근 대표가 5일(현지시각)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5' 개막을 하루 앞두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호텔에서 '사물인터넷(IoT)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두 번째 커브드 스마트폰 'LG G플렉스2' 공개

글로벌 공략 본격화

LG전자가 새해 'LG G 플렉스2'로 스마트폰 시장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

LG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5'에서 5.5인치 커브드 스마트폰 'LG G플렉스2'를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LG G 플렉스2'는 지난 2013년 11월 출시한 'LG G 플렉스'의 후속 모델로 독창적인 곡면 디자인과 고성능 하드웨어로 사용 편의성과 심미성을 한층 강화했다. 전작보다 크기는 줄이고 해상도를 높인 5.5인치 풀HD 플라스틱 OLED(P-OLED)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보다 선명된 그래픽과 생생한 화질을 제공한다.

또 퀄컴의 64비트 옥타코어 칩셋인 '스냅드래곤 810'을 탑재했다. 멀티태스킹 및 고사양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여유롭고 빠른 구동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3밴드 LTE-A 서비스'를 지원한다. 3밴드 LTE-A는 3개 대역 주파수묶음기술(CA)을 적용,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300메가비트(Mbps)로 기존 LTE 보다 4배 빠르다. 이는 1GB 영화 한 편을 27초 만에 다운 받을 수 있는 속도다.

'LG G 플렉스2'는 전작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기능인 '셀프 힐링' 기능을 대폭 강화해 기존보다 18배 빨라진 10초 안에 스크래치 복원이 가능하다. 'LG G3'에서 호평을 받은 카메라 기능인 ▲OIS 플러스 ▲듀얼 플래쉬 ▲레이저 오토 포커스 기능을 모두 탑재했다.

또 올해 한국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린 셀카봉의 사용성을 고려해 '제스처 샷'(손가락 제스처로 자동 촬영)의 피사체 인식 범위를 최대 1.5m까지 확대했다. 40분 이내에 배터리를 5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고속 배터리 충전' 기능도 갖추고 있다.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 사장은 "'LG G 플렉스2'는 스마트 라이프 제공은 물론 디자인에 예술성까지 더했다"며 "하드웨어 기술력과 독보적인 디자인 감각을 살려 스마트폰 명가' LG전자의 경쟁력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이달 한국 시장에 'LG G 플렉스2'를 출시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유아름기자 yoo@metroseoul.co.kr

네이버 의사결정 간소화

본부제 폐지로 업무 처리 단축
출퇴근 시간 없앤 '책임근무제'

네이버가 본부제 폐지를 통해 의사결정 단계를 대폭 축소한다.

네이버는 급변하는 모바일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본부제 폐지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단계가 기존 3단계에서 '센터/그룹'과 '실/랩'의 2단계로 줄어들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4월 팀제를 폐지한 바 있다. 본부제 폐지로 한성숙 이사는 서비스 총괄, 송창현 네이버 랩스 연구소장은 CTO를 맡게 된다.

한편 네이버는 '책임 근무제'를 이번달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직원 스스로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할당된 업무 시간이 없다. 책임 근무제 시행 이후에도 기존의 복리 후생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네이버 측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신속한 의사 결정과 빠른 실행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유희기자 unique@

슬림한 사이즈로 공간 부담 줄인다

생활가전, 소가구 증가로

국내 생활가전 업체들이 올해 핵심 키워드로 '슬림'에 맞춰 경쟁을 펼친다.

1인 가구 등 소가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 환경의 소형화로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이즈가 줄어들면 무게도 가벼워져 사용하기 편리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제품 크기를 줄이거나 두 가지 제품을 하나로 합친 가전 등 공간 활용도가 높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6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쇼 'CES 2015'에서 기존 제품보다 부피를 30% 이상 줄인 의류관리기 '트롬 스타일러'의 2015년형 신제품을 선보였다. 크기가 작아지면서 드레스룸, 거실 등 공간 활용이 용이해지면서 시장 크기는 더욱 커나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제품 크기뿐만 아니라 스타일링 표준 코스 소요 시간도 기존 39분에서 34분으로 줄였으며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해 기존 제품 대비 소비전력량과 소음을 각각 12%, 4dB씩 낮췄다.

크기는 줄이는 대신 기존 '스타일러' 사용 고객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바지 칼주름 관리기', '고급의류 스타일링 코스' 등 기능과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다. 도어 안쪽에 새롭게 적용한 '바지 칼주름 관리기'는 직장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정장바지의 무릎 앞 칼주름을 유지하면서도 뒤쪽 구김까지 제거한다.

한경희생활과학은 세로형으로 설계된 식품건조기 '한경희 스탠딩 식품건조기'를 지난달 말 출시했다. 이 제품은 좁은 주방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슬림한 너비의 스탠드형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식품건조기의 평균 너비에서 약 40%를 축소하는 대신 칸별로 빼서 사용할 수 있는 슬라이딩 트레이 방식을 채택해 내부 건조 용량은 늘렸다. 트레이를 빼면 용기 사이즈의 제약 없이 요구르트나 청국장 등의 발효 용도로 쓸 수 있어 활용도를 높였다.

한경희 스탠딩 식품건조기와 스팀앤고 2-in-1.
/한경희생활과학, 필립스코리아 제공

필립스코리아는 6일 물탱크를 생략한 작은 디자인의 핸디형 퀵스팀 다리미 '스팀앤고 2-in-1'을 출시했다. 자동으로 연속적인 스팀을 분사하는 전동 펌프를 스팀 헤드에 장착해 기존 퀵스팀 다리미에 있던 물탱크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본체의 무게가 720g으로 한손으로 사용하기에 가볍고 여행시 휴대하기에도 용이하다. 크기 역시 약 30㎝로 좁은 공간에도 수납할 수 있다.

/송병형기자 hluns0454@

제일모직 이번엔 삼성물산 합병?

합치면 삼성전자 지분 6% 확보… 건설·상사 분리 운영이 걸림돌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인수·합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3세로의 승계 작업이 또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다.

6일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삼성그룹의 차기 작업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제일모직은 이재용 부회장 등 3세의 지분이 42%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으며 모든 합병의 시작이자 종착점이 된다.

삼성그룹의 간판 기업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룹 지배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오너 3세의 삼성전자 지분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57%에 불과하다.

따라서 오너3세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뒤 합병·분할 등의 방식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삼성물산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 4.1%와 삼성SDS 지분 17.1%를 보유하고 있다. 즉 단순 계산으로도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의 합병으로 삼성전자 지분 4.1%를 거머쥘 수 있다.

여기에 삼성SDS가 큰 이변 없이 완만하게 주가 상승을 하는 상황(시총 30조원 가정, 5일 현재 24조원대)에서 삼성전자와 합병하면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SDS 지분 17.1%를 삼성전자 지분(2%대)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결국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하면 삼성전자 지분 6%를 품에 얻을 수 있다.

업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작업이 이달이나 다음 달 내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 주가는 상장 후 장중 최고 17만9500원까지 올랐다. 전날 하한가를 기록해 14만4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다만 삼성물산의 분할 여부가 걸림돌이다. 삼성물산은 그간 건설과 상사 부문으로 운영돼왔다.

건설 부문은 이재용 부회장이 상사부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삼성물산의 어느 부문과 제일모직을 합병할 것인지 등의 과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계열사 합병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우체국알뜰폰 10개 업체 30개 상품 판매 우체국을 통해 알뜰폰을 판매하는 업체가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된 6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알뜰폰 판매대에 다양한 상품관련 정보가 부착되어 있다. /연합뉴스

해외직구 100만명 시대 열렸다

몰테일, 지난해 신규 가입자만 34만명

지난해 해외직구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해외직구 이용자도 급증했다.

국내 최대 해외배송 대행업체 몰테일은 지난해 누적 가입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몰테일 신규 가입자수는 약 34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1.3배 증가했다. 2009년 몰테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5년만에 누적가입자수 약 101만명을 달성, 해외직구에 대한 대중적인 수요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몰테일 배송대행 신청건수는 약 164만건으로 전년 대비 1.5배 이상 신장했다.

한편 몰테일은 지난해 해외직구 인기 제품 톱10을 공개했다. 인기 제품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부터 목록통관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최대 200 달러까지 면세 혜택이 늘어나 가방, 시계, 전자제품 등의 10만~20만원 사이 패션 잡화 제품이 눈길을 끌었다.

1위인 '폴로 웨딩 점퍼'는 랄프로렌 공식 홈페이지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시즌마다 60% 이상 세일을 진행해 높은 관심을 얻었다. 겨울왕국 신드롬에 힘입어 '디즈니 겨울왕국 인형'도 인기제품 10위에 올랐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현대차 투싼ix 후속 모델, 실내 모습은?

첨단 편의장비 풍부… 올 가을 '첫선'

현대차가 개발 중인 투싼ix 후속 모델(개발 코드명 TL)의 자체 일부가 국내외에서 카메라에 잡혔다. 특히 실내 사진이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끈다.

최근 현대차 '투싼ix 후속TL클럽'과 '월드카팬즈'에 따르면 현대차는 TL의 개발을 마무리하고 도로 주행테스트를 한창 진행 중이다.

TL은 위장막으로 둘러싸여 자세한 외관을 볼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난해 제네바 모터쇼에 등장한 '인트라도' 콘셉트카와 유사한 스타일이다. 앞뒤 차체는 가운데를 돌출시킴으로써 날렵한 이미지를 살렸으며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했다.

엔진 라인업은 다섯 가지 정도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1.6ℓ GDI 가솔린 직분사 엔진과 1.7ℓ과 2.0ℓ CRDi 디젤 엔진은 유럽 시장용으로, 2.0ℓ과 2.4ℓ GDi 가솔린 엔진은 미국 시장용으로 나올 예정이다. 또한 앞바퀴굴림을 기본으로 4륜구동 시스템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TL은 편의장비 면에서도 진일보했다. 후측방 감지시스템(BSM)을 비롯해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ACC), 차선유지감지장치(LDWS) 등 첨단장비가 탑재될 예정이다.

투싼 ix의 후속 모델은 2015년 가을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며 첫 데뷔 무대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유력하다.

/임의택기자 ferrari5@[illegible]

현대 투싼 ix 후속 모델이 주행 테스트를 받고 있다(큰 사진). 투싼ix 후속 모델의 실내. /출처=월드카팬즈닷컴, 오토[illegible]

충남 보령 '동대 센트럴파크' 분양

세미래산업개발은 이달 충남 보령시 동대동 328번지 일원에서 '동대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22층, 9개동, 전체 711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84㎡ 등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

동대 센트럴파크가 들어설 보령시는 아파트 비율이 약 29%로 낮은데다, 이마저도 10년 이상 된 가구가 70%를 상회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여기에 한국중부발전 본사를 비롯한 각종 기업이 보령으로 옮겨올 예정이며, 2조8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보령화력발전소 신보령 1, 2호기는 2017년 준공될 예정이다. 열보산업단지 내 300만 톤의 LNG를 저리할 수 있는 LNG터널 공시도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대동은 보령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관창산업단지, 주포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등 인근 산업단지와의 직주근접형 입지를 자랑한다. 동대초교를 비롯한 중·고교와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병원, 보령시청, 보령종합터미널 등도 인접했다.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보령 최초로 59㎡ 소형 타입에 4-bay 혁신평면이 적용됐다.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등의 커뮤니티시설과 3000㎡의 중앙생태광장이 들어선다.

모델하우스는 보령시 동대동 408번지 일원에 마련되며 1월 중 오픈 예정이다. 시행은 세미래산업개발, 시공은 세미래건설이 맡았다. 문의)1899-6760

/박선옥기자 [illegible]

동대 센트럴파크 조감도.

토마토 요거트·대마초 씨앗 뜬다!

CNN머니, 2015년 미국 음식 트렌트 분석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미기자 seonmi@

지난해 미국 가정의 식탁에는 케일이 빠지지 않고 올라왔다. 케일이 '슈퍼 푸드'로 알려지면서다. 올해는 마리화나 씨앗과 토마토 요거트 등이 미국 식품 업계의 샛별로 떠오르고 있다고 미 경제매체 CNN머니가 최근 전했다.

◆ 케일 바통 이어 무

지난해 미국에서는 케일이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케일을 10대 슈퍼 푸드로 선정한 덕분이다. 케일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영양가가 풍부하고 항암 효과가 높다.

올해는 무가 케일의 바통을 이어 받을 것이라고 레스토랑 컨설팅 회사의 앤드류 프리먼 대표는 밝혔다. 그는 "구운 무를 비롯해 새로운 조리법의 무 요리가 식당 메뉴에 추가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다양한 무 요리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고소한 마리화나 씨앗

지난해 미국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가 지속적으로 합법화되면서 관련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마리화나 씨앗은 섬유질과 단백질, 오메가3가 풍부하며 고소한 풍미도 일품인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시리얼을 비롯해 여러 음식에 마리화나 씨앗이 들어갈 것"이라며 "환각 작용 등은 없다"고 말했다.

◆ 토마토 당근 요거트

달콤한 과일 요거트의 자리를 영양 만점 야채 요거트가 넘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딸기, 블루베리 등이 들어간 요거트가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토마토와 당근 등이 들어간 야채 요거트가 나온 뒤 꾸준히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맛이 좋은 레바논과 이스라엘 요거트도 상당수 출시된다.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스 요거트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꿀 뺨치는 메이플 시럽

전 세계적으로 꿀벌의 개체 수가 감소하면서 요리 업계는 새로운 '꿀맛'을 찾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벌꿀 뺨치는 소스'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 단풍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채취, 농축한 메이플 시럽이 '제2의 벌꿀' 아닌가. 올해는 황긋한 메이플 시럽이 첨가된 음료수와 디저트 등이 쏟아질 전망이다.

◆ 이어서~ 신 맛이 대세

신맛도 올해 음식 트렌드를 이끈다. 요리 전문가는 "그 어느 때 보다 음식에서 신맛을 강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지 않느냐"며 너스레를 떨었다. 생선과 육류 등 메인 요리에 식초와 머스터드 등이 듬뿍 들어가는 것은 물론 디저트와 음료수 역시 새콤달콤한 맛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 싶은 방송 단말기로

ESPN·CNN도 스트리밍 합류

미국 TV시장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ESPN과 보도전문채널 CNN이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제공한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위성TV 사업자인 디시네트워크의 '슬링TV'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케이블·위성 TV를 이용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아이패드, TV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각종 기기를 통해 방송을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한 달 이용료는 20 달러(약 2만 2000원)에 불과하다. 컴캐스트나 타임워너케이블 등 주요 케이블TV 업체의 시청료가 한 달 평균 64 달러(약 7만원)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한 셈이다.

미국에서 케이블 등 유료 TV 시장은 점차 위축되는 반면 훌루나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는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한 달에 8.99 달러(약 9900원)를 내면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넷플릭스는 37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단일 케이블·위성TV의 가입자 수를 제쳤다.

WP는 "보고 싶은 방송을 선호하는 기기를 이용해 볼 수 있는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주어졌다"며 "수입 대부분을 케이블 시청료에 의지하는 TV 산업의 자본 환경을 현저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도쿄증시 급락세로 마감
국제유가 급락 탓에 일본 도쿄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진 6일 한 남성이 증권사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닛케이225평균주가는 전날보다 525.52포인트(3.02%) 떨어진 16883.19, 토픽스지수는 31.95포인트(2.29%) 빠진 1361.14로 거래를 마쳤다. /AP 뉴시스

실리콘밸리 인공지능 기술 대박

빅데이터 접목해 새 트렌드 발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다. AI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투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 소재 AI 벤처기업 '콘텍스트릴러번트'의 최고경영자(CEO) 스티븐 푸르푸라의 말을 인용해 이 지역의 AI 벤처기업 170여곳이 최근 투자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반세기 전에 나온 개념인 AI가 최근 각광 받고 있는 것은 '빅데이터' 덕이다. 빅데이터는 쉽게 말해 엄청난 양의 정보를 '돈을 벌 수 있는' 고가치의 정보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각종 센서와 인터넷의 발달로 탄생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질병이나 사회현상 변화에 관한 새로운 시각, '방식', 트렌드를 알 수 있다.

AI 관련 벤처기업 '센소'의 CEO 대니얼 내들러는 금융분석가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훈련하겠다는 야심적인 목표를 제시해 15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

내들러는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는 명령어를 컴퓨터에 그저 입력하는 시대에서 컴퓨터가 당신을 보고 배우는 시대로 대전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AI 벤처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기업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양한 시안을 도출할 수 있지만 관건은 '어떤 게 이윤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느냐'다.

최근 13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AI 벤처기업 '익스픽트런스'의 CEO 팀 튜튼은 "수많은 AI 플랫폼이 스위스 군대의 칼과 같다. 이들 플랫폼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게 가장 가치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AI 벤처기업들은 이 분야에 이미 많은 투자를 해온 거대 기업 구글, 페이스북, IBM 과도 치열하는 경쟁을 해야 한다.

FT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업종으로 헬스케어, 보험, 전자상거래, 컴퓨터 보안, 사기 예방 등을 꼽았다. /박선옥기자 zan@

새로 나온 책

갯잇스타일
스타일 어드바이저/이너웃어북

한 실험에서 등일한 남성에게 후줄근한 옷과 깔끔한 정장을 번갈아 입히자 전자에게는 게으르고 무능력해 보인다는 평가를, 후자에게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비즈니스맨의 인상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치열한 비즈니스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타일을 전략적으로 연출해야 한다. 저자는 "스타일은 그 사람의 명함"이라고 강조하며, 남성의 품격과 생존력을 높이는 멋내기 전략 52가지를 소개한다. T·P·O(시간·장소·상황)에 맞는 헤어, 메이크업, 옷차림 등이다.

한뼘코끼리
윤정신/클라우스

책갈피에서 빠져나온 보아뱀과 어딜 살 소녀가 그려가는 따스한 기억과 아름다운 성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궁금한 것이 많은 소녀와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보아뱀이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던 유년의 보석을 꺼내어 지금의 나를 새롭게 비춰 보여주고 나의 현재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누군가에게 얼마나 사랑받아온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어이없게도 국수
강종희/거익북

자기 자신만의 인생 제철전을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책으로, 저자에겐 힐링 푸드로 국수가 됐다. 국수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타인과의 추억이 깃든 보물이며 삶 전체를 따뜻하게 품는 보물과도 같다고 이야기하며 힘주지 않은 담담한 어조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히 국수의 맛과 정보만 담겨 있지 않다. 글 사이사이에는 저자가 국수를 먹으며 타인과 나눈 정, 그들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이 서려 있다.

아파트 버리고 살고 싶은 집 짓기
니시이마 마코토/아름다운 사람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옮겨가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주택을 짓기 전에 시공업체부터 알아보던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은 이제 집에도 DIY 정신을 접목시키고 있다. 책은 초보 건축주에게 대지부터 설계·시공·인테리어까지 집짓기의 모든 것을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건축의 기본을 요약 정리한 필수 정보 56가지에 쉬운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와 평면도를 함께 수록했다.

행복한 선물요리
손성희/리스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함을 담아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책에는 맛있고 예쁘며 무엇보다 선물하기에 좋은 80가지 요리 레시피가 들어 있다. 선물로 바로 떠오르는 케이크나 쿠키는 물론 한과·양갱·육포까지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모든 요리가 들어 있다. 특히 건강에 좋은 재료를 담은 간식거리가 많아 성장기 어린이,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이지현기자

박경림이 만난 '워킹맘'

홍은희·신은정 등 일하는 엄마 18명 인터뷰
사람 여행 끝에서 발견한 감동과 공감 담아

워킹맘 방송인 박경림이 각계각층의 '꿈꾸고 일하는 엄마들'을 만났다.

박경림은 18명의 엄마에게서 듣고 깨닫고 배운 것을 각각 에세이로 풀어내며 '엄마의 꿈'을 완성해냈다.

배우 홍은희·신은정,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뮤지컬 배우 전수경, 영화인 심재명, 쇼호스트 유난희, 여자 핸드볼 감독 임오경, 소설가 박선란, 국회의원 신의진 등 18명은 박경림에게 그동안 감춰왔던 평범한 엄마로서의 삶과 고민, 꿈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엄마의 꿈
박경림/문학동네

촬영장에 유축기를 챙겨가며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아침마다 아이를 떼놓고 일하러 가야 하는 등 매일 엄마라서 겪는 희충우돌과 난관에 대해 가슴 찡한 공감의 수다를 나눈다. 또 본인 육아 '원격 숙제 관리' 등 자기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엄마의 삶'에 대해 현바탕 이야기 축제를 벌인다.

이 책은 박경림의 이름을 달고 나온 책이지만 그녀 혼자 쓴 책이 아니라 그녀와 만나고 대화한 18명의 엄마들과 함께 완성된 책이다.

계속 꿈꾸고 노력하는 엄마들에게서 배운 삶의 내공과 비밀, 기나긴 '사람 여행'의 끝에서 그녀 스스로 발견한 감동과 메시지를 담아 이 책을 통해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의 기쁨과 슬픔을 아우르며 진한 감동과 공감을 자아낸다.

/김수정기자 ks0015@metroseoul.co.kr

책속 그곳 — 당신에게 전하는 도시 이야기

누군가에게 도시는 그리운 곳이고,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곳입니다. 남겨두고 온 사랑으로 아련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희망의 꿈에를 발견하기도 하고 숨어 있는 이야기에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삶의 이야기가 당신에게까지 번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멈춰 세우는 도시(백승선/컬)〉 중

/황재용기자 hsoul38@

반디앤루니스, 타임캡슐 이벤트

반디앤루니스는 25일까지 새해를 맞아 신년 각오와 계획을 세우는 타임캡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벤트는 '오늘보다 내일 더 빛날 나에게'라는 주제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각오, 계획, 자신에게 보내는 격려 등을 편지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첫 시작된 이래 지난해까지 해당 이벤트에는 총 1만5000여 명이 참여했다.

작성된 편지는 즉시 봉인되며 오는 12월 이메일과 문자로 전달된다.

반디앤루니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웹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도서·디자인 문구 등을 구매할 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500 포인트가 증정된다.

황아영 본부장은 "마음의 양식인 책으로 한 해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타임캡슐 이벤트를 기획·진행하고 있다"며 "풍요로운 2015년을 위해 새해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하는 고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클래식과 함께하는 동화

화제의 책

모차르트와 세계명작
손준호·김소현/emStory

뮤지컬 스타 손준호·김소현 부부 첫 동화책

국내 최고 뮤지컬 배우 중 하나인 손준호·김소현 부부가 첫 동화책을 선보였다.

책에는 ▲빨간모자 ▲고누까기 인형 ▲피노키오 ▲브레멘음악대 ▲장화 신은 고양이 등 세계명작 동화 5편이 수록돼 있다. 또 클래식 음악이 아이들의 정서 안정과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 착안해 동화에 클래식을 접목했으며 이를 통해 아이가 자연스럽게 클래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모차르트 소나타를 배경 음악으로 손준호·김소현 부부가 실감나는 목소리 연기를 펼치는 오디오 CD는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게다가 김소현이 작사하고 손준호가 노래한 클래식 창작동요 2곡도 함께 실려 있다.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가사와 아빠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각 동화에 맞게 제작된 각각의 일러스트를 감상하는 것도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저자 수익금 일부는 굿네이버스를 통해 국내 아동권리 보호사업과 빈곤 가정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일하는 여성 위한 '4무(無)조리' 인기

삶고 가열하고 자르고 물 넣기 생략
식품업계에 부는 '이브올루션' 바람

최근 우리 일상생활에 '이브올루션(EVEolution)'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브올루션이란 여성들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비즈니스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골드 미스'와 같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도 탄생했다. 실제로 유엔(UN)은 '10년 후 세계'라는 미래보고서를 통해 오는 2018년 무렵이면 모든 소비재의 70%를 여성이 구매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식품 업계 '일하는 여성'의 노동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4무(無)조리'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무자(無煮)-삶는 과정을 빼다

면 요리를 할 때 뜨거운 물에 따로 면을 삶는 과정은 필수라고 여겼다. 그러나 최근 면을 삶지 않고도 면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한 제품들이 출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풀무원은 면을 삶거나 소스를 따로 끓일 필요 없이 프라이팬에 포장된 면과 소스를 한꺼번에 볶아서 바로 먹을 수 있어 편리한 '로제 스파게티'를 출시했다.

◆무열(無熱)-열 가하는 과정을 빼다

열 조리 단계가 필수라고 여겼던 요리들도 이제는 열 없이도 즐길 수 있다.

시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어묵은 조리거나 볶는 등 부수적인 열 조리 방법이 필수라고 생각되던 식재료다. 하지만 풀무원의 프리미엄 어묵 '알래스칸특급 12종'은 이런 편견을 깬 어묵 제품이다. 고급 원료와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별도의 양념을 곁들이지 않고도 바로 즐길 수 있다.

동원F&B의 '동원 볶음카레참치'는 열을 가하지 않고도 맛있는 카레를 바로 즐길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볶음카레소스를 담은 가미참치로 따로 카레를 조리하거나 데울 필요 없이 따뜻한 밥에 부어 그대로 비벼먹으면 된다.

◆무분(無分)-자르고 나누는 과정 빼다

요리를 하다 보면 필요한 용량을 미리 가늠해 자르고 다듬는 일조차 귀찮을 때가 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이제는 자르고 다듬는 과정마저 과감히 빼버린 제품들도 등장했다.

움가홈푸드의 '움가 친환경 거금도 자른 미역'과 '움가 친환경 거금도 자른 다시마'는 조리에 편리하도록 손질된 재료를 미리 잘라둔 제품이다. 파우치 포장이 되어있어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쓴 후 보관이 용이하다.

롯데푸드는 밥을 싸먹을 수 있도록 잘라 포장한 '의성 마늘 햄 슬라이스'를 선보이고 있다. 국내산 돈육과 품질 좋은 의성 마늘을 사용한 햄을 얇게 슬라이스 해 다양한 요리에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무수(無水)-물을 넣는 과정을 빼다

음식을 조리할 때 물을 맞춰 넣는 단계를 제외한 제품도 있다. 미리 손질된 재료를 포장된 용기 그릇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간편하게 단품 요리가 완성된다.

풀무원의 '찍먹는 야채믹스'는 한 입 크기로 손질된 고구마, 당근, 단호박 등 신선한 야채를 한 팩에 담은 간편 야채찜 제품이다. 따로 물을 넣거나 찔 필요 없이 봉투째 그대로 3분 동안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바로 완성된 찜 야채를 맛볼 수 있다.

/정경호기자 jumo@metroseoul.co.kr

"국내산 콩 두부 드세요" 6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홈플러스 금천점에 새롭게 오픈한 국내산 콩 즉석 두부 전문매장에서 모델들이 즉석 두부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즉석두부는 매장에서 전문직원이 직접 국내산 세콩을 6시간 이상 불리고 기계로 간 후 응고시키는 방식으로 만들며 가격은 100g당 1032원이다. /연합뉴스

'덩치 큰' 편의점 PB 잘나가네

가격 낮추고 중량 늘린 시리즈 상품 늘려

편의점업계가 대용량 PB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가격 대비 상품 용량을 늘리면서 가치 소구형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시리즈 전략을 내세워 상품 구색도 확대하고 있다.

GS25는 지난달 편의점 판매 일반 햄버거(평균 112g)보다 약 3배 중량이 많은 '위대한 더블 버거'를 출시했다. 햄버거 전문점에서 트렌드로 자리잡은 더블패티 콘셉트를 벤치마킹해 개발했다. GS25의 위대한 시리즈는 2011년 위대한 피자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2종이 판매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중량은 늘리면서도 중량 대비 가격을 낮춘 '더 커진'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더커진 훈제바베큐치킨', '더커진 훈제오리훈제' 2종을 추가했다. 특히 훈제바베큐치킨의 경우 유사 NB 상품보다 g당 가격이 26% 가량 저렴하고 훈제오리훈제는 기존 NB 상품과 비교해 g당 단가가 41% 싸다.

CU도 자이언트 시리즈 확대 일환으로 '자이언트떡볶이'와 '제육덮밥', '참치김치덮밥'을 추가했다. 용량은 늘리고 가격은 낮추는 전략으로 해당 시리즈가 인기를 얻자 핫도그, 떡볶이, 어묵바, 피자 등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이 외에 미니스톱은 기존 삼각김밥의 약 1.5배 중량을 늘린 스틱 주먹밥을 출시하기도 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강강술래 "새해엔 독서하세요"

길벗 출판과 도서선물 이벤트 진행
여행상품권·불고기 세트 경품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sullai.com)가 을미년 새해를 맞아 도서출판 길벗과 함께 1월에 읽으면 좋은 추천도서를 선물한다.

'스키너의 마지막 강의'는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의 삶에 관해 남긴 마지막 강의를 엮은 책으로, 노년을 '낯선 나라'라고 표현하며 많이 읽고 준비할수록 새로운 생활이 즐거워진다고 조언한다.

'슈퍼맘 스토리'는 할머니에게 잼 제조법을 배워 열네 살 때 회사를 차려 세계적인 천연잼 제조업체 '슈퍼잼'의 최고경영자가 된 프레이저 도허티의 창업 도전기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책을 증정한다.

이달 15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대용량(800ml·9봉-45인분)과 소용량(350ml·5봉-10인분) 곰탕으로 구성된 보양식 한우사골곰탕박스를 55% 할인된 3만6800원에 판매한다.

또 매장 인기메뉴로 구성된 '잘먹고잘사자세트(한우불고기600g+숯불양념520g+한돈양념500g+5천지양념500g)'는 6만원(45% 할인), '건강기원세트(강강양념520g+한우불고기500g)'는 4만5000원(35% 할인)에 선보인다.

한편 강강술래는 전 매장을 찾은 고객이 1월 말까지 명함 또는 이름, 연락처를 적어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1등 동남아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권(2명·동반 1인), 2등 한우불고기2호 선물세트(30명), 3등은 냉면상품권 1매(100명)를 준다. /배재용기자 ...

롯데리아, '라면 버거' 제품 한정판매

롯데리아가 '라면 버거'를 전국 롯데리아 매장에서 한정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롯데리아 라면버거는 삶은 라면을 구워 부드러운 식감을 강조한 제품으로 라면 특유의 맵고얼큰한 맛을 나타내기 위해 할라피뇨 소스를 토핑해 닭가슴살 치킨 패티와 어울린 볶닭 콘셉트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라면버거는 지난 99년 출시돼 두터운 매니아 층을 형성하고 있는 어깨피어스 불고기 버거 이후 약 16년 만에 출시되는 이색 제품이다. 단품은 3400원, 세트 메뉴는 5400원이다.

롯데리아 측은 라면 버거의 판매 추이와 고객 반응에 따라 정식 제품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박지원기자

유통가, 배송 차별화 '잰걸음'

상시 운영 이벤트부터 자전거 배달까지

유통업계의 배송 경쟁이 치열하다. 상품과 가격만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업계가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 구축에 발 빠르게 나섰다.

인터파크도서는 지난달부터 '배송의 재발견, 최고의 박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메시지를 포함한 박스를 제작해 도서 배송을 하는 이벤트로 당분간 이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메시지 외에도 '이달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 이미지와 소개가 담긴 박스 2종도 배송에 사용하고 있다. 최고의 박스는 매일 1500명에게 배송되고 있다.

소셜커머스 업계 쿠팡도 쿠팡맨 배송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택배업체 직원이 아닌 쿠팡맨이 직접 상품을 배송해주는 것으로 이들은 로켓 배송 제품으로 구분된 유아용품·생필품 등 1만여 품목을 전담한다. 쿠팡은 올해 쿠팡맨 직원 수를 늘리는 등 인프라 구축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세븐일레븐은 옴니채널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점포에서 1만원 이상 구매 접수할 경우 한 시간 내에 원하는 장소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자전거와 카트 배달을 병행한다. 또 상품 변질을 막기 위한 보온 보냉 박스도 활용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

'국제시장'을 만나다

'박물관은 살아있다' 등 향수 자극 체험공간 탐방 늘어

굴곡 많은 한국 현대사와 아버지 세대의 희생을 그린 영화 '국제시장'이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 현대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들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을 모두 따뜻하게 해줄 한국사 체험 명소를 소개한다.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오감만족 테마파크 '박물관은 살아있다'에서는 한국사를 다룬 다양한 트릭아트를 체험할 수 있다.

1960~70년대 서민들의 생활공간에 판타지를 더해 재현된 한국존이 마련돼 있으며 다양한 장면을 연출해 기념촬영도 가능하다. 시장에서 할머니 등에 업히는 것처럼 표현 가능한 '억덕하지 못했던 나의 어린 시절'과 자신을 희생한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뼛속까지 사랑' 등의 작품은 인기가 좋다.

박물관은살아있다에서는 한국사를 아우른 다양한 트릭아트를 만날 수 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 제공

이와 함께 인사동 골목에 있는 골동품점 토토의 오래된 물건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옛날 물품들을 모아 놓은 아날로그 공간이다. '로봇 태권브이' 등 어린시절 유명 만화영화 속 주인공의 피규어가 가득하고 딱지와 공기 등 부모세대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놀이용품도 다양하다.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판잣집 테마촌에서는 60년대 판자촌을 경험할 수 있다.

청계천을 따라 두 층 남짓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어려웠던 생활상을 되돌아볼 수 있는 판자촌이 실감나게 꾸며졌으며 그 시절 교실과 다방도 이용 가능하다. 교련복을 입고 사진촬영을 찍거나 추억의 간식을 맛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관절 관리 신경씁시다"

걷기·수영·자전거 타기 등 운동 꾸준히

관절도 사람의 신체 중 하나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늙어간다. 하지만 운동과 관리를 통해 노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

전문의들은 가장 효과적인 운동으로 '걷기'를 꼽는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뼈 단련에 도움을 주며 관절의 노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관절을 위한 운동이며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관절에 좋다.

아울러 골밀도를 높이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멸치와 김 등의 해산물과 콩류, 유제품에 칼슘이 많이 함유돼 있다. 게다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뼈와 관절의 노화를 막고 염증을 줄여주는 비타민과 무기질도 필요하다. 나트륨은 칼슘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저염식도 관절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생활습관이다.

송상호 웰튼병원 원장은 "손상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관절은 평상시 운동을 통해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또 관절의 노화가 시작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여심 잡는 유이인 긱시크 패션 더 클래스가 전속모델 유아인과 함께 겨울 화보를 6일 공개했다. 더 클래스는 자유분방함과 진중한 스타일을 동시에 표방하는 긱 시크(Geek Chic) 패션을 제안했다. 어두운 색감의 블랙&그레이, 모더를 드러내는 스키니, 역동적인 느낌이 강조된 '게크' 등 독특한 디자인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더클래스 제공

아이엠투어, 말레이시아 특가 상품 선봬

골프투어 전문여행사 아이엠투어가 동남아로 골프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 말레이시아 10일 특가 상품을 출시했다.

상품은 항공과 숙박, 식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쿠알라룸푸르에서 1시간40분 거리에 있는 바라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수 있다.

골프를 마친 후 자유시간에는 현지의 다양한 문화활동도 즐길 수 있다.

상품 가격은 129만원이며 오는 21일과 27일, 다음 달 3일과 16일에 출발한다. /황재용기자

'토토가' 열풍에 SES 머리방울 불티

힙합바지·두건 판매도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이하 토토가) 방송이 끝난 후에도 뜨거운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90년대 추억을 찾는 손길이 늘면서 복고 패션상품들도 '토토가 효과'를 보고 있다.

6일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SES 스타일의 머리방울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250% 가량 대폭 증가했다. 이어 평균의 무대의상이나 어울릴법한 나시스는 200%, 떡볶이 코트라 불리며 90년대를 평정했던 더플코트도 171%나 늘었다.

토토가에서 지누션이 보여준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의 열띤 호응을 반영하듯 2000년대 들어 자취를 감춘 힙합바지도 매출이 25% 껑충 뛰었다. 두건 매출 역시 50% 증가했다.

스마트폰 케이스와 같은 최근 상품에도 복고바람이 불고 있다. 1990년대 즐겨하던 수동게임을 접목한 스마트폰 케이스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114% 신장했다.

한편 아이스타일24는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간 자사 SNS를 통해 '토토가 시즌2에서 보고 싶은 90년대 스타'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286명 중 무려 34%가 'HOT'라고 답해 1위를 차지했다. 핑클(23%), 젝스키스(21%), 룰라(11%), 엠티스클럽(7%)이 뒤를 이었다.

아이스타일24 관계자는 "대중음악의 황금기였던 1990년대를 그리워하는 향수가 맞물려진 아이템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채지윤기자 jy1ee@

임주환의 2015년? '빛나거나 미치거나'

배우 임주환(32)은 영화 '기술자들'을 통해 전역 후 처음 관객과 만났다. 김우빈·이현우·고창석과 대립하는 조 사장(김영철)의 수하 이 실장으로 출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오는 19일부터는 MBC 새 월화극 '빛나거나 미치거나'로 시청자와 만난다. 임주환은 "한없이 부족한 중고 신인"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술자들'을 시작으로 '빛나거나 미치거나'를 통해 맹활약할 것을 각오했다.

"한없이 부족한 중고 신안 드라마 방송되면 왕욱에게 연민 느낄 것 튀는 캐릭터라 덜어내려고 했어요"

◆ '기술자들' : 흉터에 과거 숨긴 이 실장

백인 코를 끝인 도신 흉터는 이 실장의 과거가 평탄치 않음을 암시한다. 임주환은 실장의 과묵한 성격과 날렵한 몸놀림을 스크린에 담아 냈다.

"될 수밖에 없는 역할인데 강하게 보아도 뚝 연기하면 더 어색해졌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두드러지지 않으려고 했죠. 김홍선 감독도 '덜어내라'고 조언했어요. 코 흉터에 대해 '흉터 수술을 하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아픈 과거가 있을 수도 있고 삼재에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사회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말을 하고 싶어도 대사가 많아 없었어요. 말도 국어책 읽듯 무미건조하게 하죠. 아무 것도 없는 캐릭터라 아무 것도 안 했고 조 사장의 그림자처럼 보이게끔 연기했습니다."

이 실장은 감독이 만든 가상 인물이다. "말도 끝도 없는 캐릭터죠. 관객이 상상하게 하는 역할이라 불친절하기도 해요. 왜 조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지도 안 나오고요. 사람을 보자 마자 때려요. 판타지적이고 아마 싸움이 귀찮은 인물이에요. 흉터나 태닝도 제가 갖고 있는 부드러운 외모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죠."

그동안 번듯하고 순한 역할을 소화했던 그는 이 실장으로 연기 변신을 했다. "관객이 신선하게 봐 준 것 같아 감사해요. 감독도 신선함을 부각시키고 싶어했어요. 영화 촬영 중에는 흉터가 노출되지 않게 신비주의를 유지하라고도 했죠. 개봉 후 감독은 자신이 건 도박에 만족해 했습니다(웃음). 그렇지만 잘 했다고 평가 받는 건 부끄러워요. 더 굵고 무게감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빛나거나 미치거나' 야심 숨긴 왕욱

임주환은 현재 '빛나거나 미치거나' 촬영에 한창이다. 선량한 외모와 달리 어두운 야심을 숨긴 왕욱 역을 맡았다. "어두운 쪽으로 이미지를 잡는 건 아니에요. 왕욱은 끝까지 악역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갖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변해가는 사악한 로맨티시스트죠. 오연서를 두고 장혁과 경쟁하는데 (방송이 시작하면) 왕욱에게 연민을 느끼실 거예요."

그는 왕욱 역에 대해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손형석 감독과는 드라마 '옥션하우스'(2007)를 통해 작업했었어요. 지난해 MBC 드라마스페셜 '장염당 일기'에서 금지된 사랑과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김상연을 연기했었는데 감독이 그 느낌 그대로 저를 섭외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을 거예요. 아직 배우로서 입지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욱은 저게 새로운 도전이죠. 왕욱은 실존 인물이지만 매체를 통해 소개된 적이 없어요. 감독과 대화하면서 캐릭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 연극이 좋았던 모델 출신 배우

임주환은 고등학생 시절 우연히 연극을 하게 됐다.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난 새로움을 느꼈어요. 학생으로선 나쁘지만 연극을 보러 다니느라 결석을 꽤 했죠. 출석 일수가 맞지 않아 졸업을 못할 뻔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선 좋은 경험이었죠. 연극 대회에 나가 수상 하며 이름을 알리니까 학교에서도 지원해주더라고요."

임주환은 MBN 드라마 '왓츠업'(2011)에서 대학교 뮤지컬학과 학생 장재헌으로 출연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뮤지컬을 기피하는 대학생이었다. "지금은 뮤지컬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대학 시절에는 연극에 빠져 있었어요. '연극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뮤지컬 좋다'는 어떤 동기의 말에 발끈하기도 했죠. 돈벌이로 연극과 뮤지컬을 나누는 게 싫었어요. '왓츠업'도 초반에는 연극영화과가 배경이었어요. 나중에 송지나 작가가 뮤지컬에 사로잡혀 극 배경이 바뀐 거예요. 아쉬웠죠. 어쩔 수 없어 뮤지컬을 접했고 그 매력을 알게 됐습니다. 뮤지컬을 하게 되면 조연부터 해야죠. 새로운 곳이니까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정효진기자 jeonh@metroseoul.co.kr

사진/김선우(라온드리미엔터) 디자인/최송이

뻔한 성장담은 이제 그만!

음악 중심의 뮤직드라마 '칠전팔기 구해라'
"12회 분량 전곡 준비 완료… 추억 담은 노래의 힘 보여 줄 것"

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이 개국 20주년을 맞아 준비한 12부작 뮤직드라마 '칠전팔기 구해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드라마는 지난 2010년 방송된 '슈퍼스타K2'를 배경으로 한다. 민효린(구해라 역)과 쌍둥이 형제 곽시양(강세종 역), B1A4 진영(강세찬 역)이 주인공으로 분한다. 헨리, 박광현, 유성은 등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청춘들로 등장할 예정이다.

6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김용범 PD는 "음악과 드라마의 비중을 50대50으로 하려 했지만 음악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 어떻게 하면 기존 뮤직드라마가 갖는 공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작가진과 많이 논의했다"며 "토토가처럼 추억을 담고 있는 노래로 드라마 몰입감을 높할 것이다. 창작곡도 포함돼 있지만 리메이크 곡을 중심으로 가사에 힘을 주기 위한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PD는 이어 "'드림하이'와 '몬스타' 등 좋은 뮤직드라마 작품이 많았다. 하지만 '칠전팔기 구해라'는 등장 인물들의 음악적 성장보다 실패한 사람들의 재기를 다룬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10대를 겨냥한 기존 작품과 달리 20대를 주 시청층으로 삼았다. 추억의 노래로 포괄적인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안준영 PD는 "스토리와 음악의 조화에 신경 썼다. 총 12부작인데 각 파에 걸쳐 삽입될 음악 전곡이 준비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용범 PD는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와 '댄싱9'을 제작했고 안준영 PD는 '댄싱9 시즌2'를 연출했다. 두 PD는 이번 드라마의 매 장면이 '슈퍼스타K' 속 '슈퍼위크'를 촬영하는 것 같았다고 사실적인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극중 민효린을 둘러싼 두 형제 곽시양·진영의 사랑 싸움도 드라마의 볼거리다. 안 PD는 "실제 슈퍼스타K에서도 출연자들끼리 애정 전선이 생긴다. 이런 러브라인이 드라마에 자연스럽게 등장할 것"이라며 "드라마 역사상 가장 기대되는 형제의 난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높였다.

'슈퍼스타K2'의 '톱11', 그리고 가수 윤종신, 백지영, 박진영, 박명식 등이 카메오로 출연한다. 김 PD는 "실제 심사위원이였던 가수 이승철은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원했던 장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연쳔기는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표했다.

'칠전팔기 구해라'는 김용범·안용준 PD와 함께 '진짜사나이', '뮤직뱅크', '전생연분' 등을 작업한 신명진 작가, '논스톱', '압구정 다이어리' 등을 집필한 정수현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매 회당 90분 편성으로 오는 9일 엠넷을 통해 첫 방송된다.

/김하얀기자 kme0104@metroseoul.co.kr

6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Mnet 뮤직드라마 '칠전팔기 구해라' 제작발표회에서 헨리, 곽시양, 민효린, 진영, 유성은, 박광현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Mnet 제공

고(故) 신해철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넥스트 Utd.(이하 넥스트)의 콘서트가 전국 투어로 확대됐다. 신해철과 넥스트 보컬 이현섭. /KCA 엔터테인먼트 제공

넥스트 콘서트 전국 투어로

내달 부산 시작 대구·대전·광주 개최

고(故) 신해철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넥스트 Utd.(이하 넥스트)의 콘서트가 전국 투어로 확대됐다.

신해철의 소속사 KCA 엔터테인먼트는 넥스트의 공연이 다음달 28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광주, 청주 등지에서 개최된다고 5일 밝혔다.

넥스트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부제로 고인을 기리는 콘서트를 열었다.

KCA 엔터테인먼트는 "공연이 끝난 후 많은 팬들과 공연 관계자들의 추가 공연 문의가 쇄도했다. 특히 이 날 함께하지 못한 팬들이 지방에서도 공연을 열어달라고 소속사에 요청했다"며 "넥스트 멤버들, 유족 측과 논의한 결과 이번 공연을 전국 투어로 확대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신해철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팬들이 보내준 애도와 넥스트에 대한 애정에 보답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번 결정은 팬들을 향한 감사의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서울 공연이 신해철을 추모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이번 전국 투어는 넥스트의 음악 색깔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투어와 함께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익을 강화해주는 일명 '신해철법' 제정 서명 운동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kimjkim@

자이언티·크러쉬 합동 콘서트

3월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서 사흘 동안

힙합 레이블 아메바컬쳐 소속 아티스트 자이언티(Zion T)와 크러쉬(Crush)가 오는 3월 6~8일 사흘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컬래버레이션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을 주최·주관하는 아메바컬쳐와 CJ E&M은 5일 "평소 교류가 활발했던 두 아티스트가 이번 콘서트를 통해 음악적 케미(케미스트리)의 정점을 찍을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음악성과 스타일을 겸비한 두 아티스트는 각자의 대표곡은 물론 서로 함께 특별한 컬래버레이션 무대까지 선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련된 보컬을 자랑하는 자이언티는 지난해 '양화대교'를 발표하며 언더 힙합 신을 넘어 대중에게도 사랑받는 새로운 음원 강자로 떠올랐다. 크러쉬는 자신의 노래 '가끔'을 비롯해 로꼬의 감아,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OST '잠 못드는 밤' 등을 작업하며 한국 힙합 R&B의 미래로 평가받았다.

'자이언티&크러쉬 콘서트' 티켓 예매는 오는 8일 오후 8시부터 인터파크를 통해 가능하다. /김지민기자

올해도 '김광석 다시부르기' 콘서트

한동준·자전거탄풍경·유리상자 등 출연
엠넷 '슈퍼스타K 6' 곽진언·김필도 동참

고(故) 김광석을 기리는 공연 '김광석 다시부르기'가 올해에도 개최된다.

'김광석 다시부르기 2015'는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대구 공연은 다음달 7·8일 이틀간 경북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김광석 다시부르기'는 지난 2009년 고 김광석의 고향인 대구에서 시작해 매년 10여개 도시에 개최되고 있다. 공연 주최 측에 따르면 '김광석 다시부르기'는 한 가수를 추모하는 단일 공연으로 전 세계 최장기, 최대 규모다.

올해 공연에는 고인의 친구였던 박학기를 비롯해 한동준, 자전거 탄 풍경, 유리상자, 동물원 등이 출연해 김광석의 음악을 다시 들려줄 예정이다. 또 지난해 방영된 엠넷 '슈퍼스타K6'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곽진언과 김필도 함께할 계획이다.

지난 1996년 1월 6일 김광석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그의 음악은 콘서트, 뮤지컬,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꾸준히 사랑받아왔다. /김지민기자

공영방송답지 않은 드라마 '스파이'

KBS 새 금요극… 파격 편성 이유는?
가족끼리 속고 속이는 첩보 스릴러

가수 겸 배우 김재중이 KBS2 새 금요드라마 '스파이'를 "공영방송답지 않은 드라마"라고 표현했다.

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열린 '스파이' 제작발표회에서 김재중은 "KBS에서 제한됐던 몇 건 장면 범위들이 이번 작품에서는 제한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방송됐던 드라마의 느낌과 다르다"고 작품의 관전 포인트를 설명했다.

'스파이'는 이스라엘 드라마 '마이스'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다. 전직 간첩인 엄마와 국정원 요원 아들의 이야기를 그린 가족 첩보 스릴러다.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내용을 담는다. 오는 9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9시30분에서 11시10분까지 50분 방송물을 2부 연속 방영한다.

KBS가 신년을 맞이해 선보이는 파격적인 편성이기도 하다. 박현석 감독은 "KBS 편성 중 가장 약했던 시간대에 강한 콘텐츠를 넣자고 합의했다"며 "장르는 감성 느와르, 내용은 정통 가족극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가 즐기는 드라마를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기획했다. 가장 우선시한 건 재미"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원작과의 차별화에 대해서는 "원작은 더 장르적인데 '스파이'는 한국적인 감수성, 인물 사이의 균형을 다시 조정했다"며 "김선우(김재중), 박혜림(배종옥) 모자 이야기에 집중했다. 변안에 그치는 드라마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KBS2 새 금요드라마 '스파이'에 출연한 유오성·배종옥·김재중·고성희·조달환·류혁민·김진재(왼쪽부터) /KBS 제공

김재중은 작품에서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관찰력을 지닌 천재 국정원 대북정보 분석담당 애널리스트 김선우를 연기한다. 그는 엄마 박혜림, 연인 이윤진(고성희)과 호흡을 맞춘다. 김재중은 "박종옥 선배는 아름답다. 젊은 엄마와 연기해서 정말 좋고 나이 있는 누나와 있는 기분"이라며 "고성희는 묘한 매력을 지녔다. 볼수록 예쁘다. 특히 목소리가 좋아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한다"고 함께 연기한 소감을 전했다.

배종옥이 분한 박혜림은 평범하게 살기 위해 북한에서 내려온 인물이다. 아들 바보인 그는 국정원 아들을 구하기 위해 숨겨왔던 과거를 꺼낸다. 액션 연기를 대역 없이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희가 연기하는 이윤진은 비밀을 간직한 회사원이다. 고성희는 "어느 편인지 아직 대답할 수 없다"며 "어설프겠지만 강인하기도 하다. 윤진의 시각, 입수 여부에 집중해달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전효진 기자 jeon@metroseoul.co.kr

송재림 '착하지 않은 여자들' 출연

KBS2 새 수목드라마… 이하나와 로맨스

배우 송재림(사진)이 KBS2 새 수목극 '착하지 않은 여자들' 출연을 확정했다.

송재림은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서 계대 출신 검도사범 루오 역을 맡았다. 반듯한 외모를 지녔지만 까칠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국어 시간 강사 정마리(이하나)와 로맨스를 그려갈 예정이다.

송재림은 지난해 KBS2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 tvN '잉여공주'를 통해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MBC 예능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서는 능청스러운 성격으로 여심을 사로잡으며 대세로 떠올랐다. 차기작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높은 이유다.

'착하지 않은 여자들'은 엄마와 딸, 손녀까지 3대에 걸친 착하지 않은 여자들의 사랑과 성공, 행복 찾기를 담은 작품이다. 오는 2월 방송될 예정이다. /전효진 기자

한근섭, tvN 신스틸러 노린다

'호구의 사랑' 이어 '놓지말자 정신줄' 합류

배우 한근섭(사진)이 tvN에서 본격적으로 신스틸러 자리를 노리게 됐다.

한근섭의 소속사 비엠컬쳐스는 지난 2일 tvN의 새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에 한근섭이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전한 것에 이어 6일 이 채널의 첫 단막극 '현대사 고백' 중 '놓지말자 정신줄'에도 합류한다고 밝혔다.

'호구의 사랑'은 한근섭의 2015년 첫 작품이다. 소속사 측은 "3회부터 첫 출연에 합류했다. 한근섭은 호구의 단짝 친구로 등장해 톡톡 튀는 감초연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tvN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함께 공동 기획·방영하는 '현대사 고백'은 1950년대부터 2000년 사이의 대한민국 역사 이야기다. 근현대사 속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며 현재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단막극 시리즈이다.

다수의 드라마 PD와 영화감독들이 참여해 총 10편으로 만들어질 단막극 중 한근섭은 '놓지말자 정신줄'에서 북한군 역할로 개성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북한군은 한근섭이 영화 '코리아'를 비롯해 가장 많이 연기했던 역할이기도 하다.

한편 한근섭은 영화 '식객: 김치전쟁', '아저씨', '전설의 주먹', '부러진 화살', '족구왕' 등 다수의 영화에서 단역으로 출연했다. '호구의 사랑'은 '힐러 있는 사랑' 후속으로 2월 9일 첫 방송되며 '놓지말자 정신줄'은 2월 방영될 예정이다. /김민철 기자 kimc0604@

“국민 첫사랑 이미지? 솔직히 원해”

한효주, ‘쎄시봉’으로 스크린 컴백
김희애와 2인 1역 연기 “영광 그 자체”

배우 한효주가 영화 '쎄시봉'(감독 김현석)으로 2015년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감시자들' 이후 1년 7개월여 만의 스크린 컴백작이다.

6일 오전 서울 CGV 압구정에서 열린 '쎄시봉' 제작보고회에서 한효주는 MC 박경림으로부터 "(이번 영화로) 국민 첫사랑에 등극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한효주는 "(국민 첫사랑 이미지를) 원한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이어 한효주는 "그래서 이 영화를 선택했다"며 "설렘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자연스럽게 티내지 않고 매력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쎄시봉'은 1960년대 포크 음악 열풍을 이끌었던 트윈폴리오가 듀엣이 아닌 트리오였다는 가상의 설정을 바탕으로 그 시절 청춘들의 사랑과 열정을 그리는 영화다. 한효주는 실존 인물인 윤형주(강하늘), 송창식(조복래), 그리고 가상의 인물인 오근태(정우)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뮤즈 민자영 역을 맡았다.

한효주는 "현장에서 사랑 받을 수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였다. 물론 영화지만 그런 기운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연기하니까 즐거웠다"고 오랜만의 스크린 컴백에 대한 들뜬 소감을 밝혔다.

이번 영화에서 한효주는 선배 배우인 김희애와 함께 2인 1역 연기를 펼치기도 했다. 김희애는 40대가 된 민자영 역으로 극중 오근태의 40대를 연기한 김윤석과 호흡을 맞췄다.

6일 서울 CGV 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쎄시봉'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배우 김윤석, 김희애, 한효주, 정우 (왼쪽부터)

/손진영기자 son@

김희애는 "한효주는 정말 좋아하는 후배라서 2인 1역이 좋았다. 그런데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 부담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효주가 정말 예뻐서 놀랐다"고 말했다.

이에 한효주는 "(김희애 선배와의 2인 1역 연기는) 정말 영광 그 자체였다. 촬영을 하면서 '나는 김희애 선배다'라고 생각하며 연기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현석 감독은 "쎄시봉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또한 트윈폴리오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라기도 했다"며 "4~5년 전 쎄시봉 바람이 불었을 때, 오랜만에 방송 출연을 한 이장희 선생님이 굉장히 즐겁게 사시는 모습에 놀랐다. 그분들의 삶에 영감을 받아서 시나리오를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쎄시봉'은 김윤석, 정우-김희애-한효주-강하늘, 조복래 외에도 진구, 장현성, 김인권 등 호화 출연진을 자랑한다. 오는 2월 중 개봉 예정이다.

/한용호기자 solemi@metroseoul.co.kr

‘국제시장’ 800만도 훌쩍~
‘7번방’보다 4일 빠른 흥행 속도

영화 '국제시장'이 개봉 21일 만에 8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국제시장'은 개봉 21일째인 6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800만34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겨울 극장가에서 흥행 신드롬을 일으켰던 1000만 영화 '7번방의 선물'보다 4일 빠른 속도다.

'국제시장'은 개봉 3주차 주말 이틀 동안 총 118만4805명의 관객을 동원해 개봉 첫 주말보다 32% 증가한 관객 수를 기록했다. 개봉 이후 흥행에 점점 속도가 붙고 있어 최종 관객 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17일 개봉한 '국제시장'은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 덕수와 이야기를 통해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해운대' 윤제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황정민, 김윤진 등이 출연한다.

/장병호기자

‘화장’ 올 봄에 만난다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영화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영화 '화장'이 올해 봄 개봉을 예고하며 티저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화장'은 죽어가는 아내와 젊은 여자 사이에 놓인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이다. 2004년 제28회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김훈 작가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6일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주연 배우 안성기의 모습을 담았다. 특유의 깊이 있는 연기와 감성적인 분위기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단 한 컷의 이미지 속에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인생의 서글픔과 그 속에 놓인 한 남자의 내면을 담아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함께 공개된 티저 예고편은 거리를 배회하는 주인공의 쓸쓸한 뒷모습으로 시작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인물의 갈등을 고스란히 담았다. 온몸을 내던진 연기로 주목 받고 있는 배우 김호정의 삭발 투혼, 매혹적인 캐릭터로 분한 김규리의 매력, 그리고 두 여인 사이에 놓인 남자가 된 안성기의 내면 연기가 인상적이다.

'화장'은 제71회 베니스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토론토·밴쿠버·부산·하와이·스톡홀름·싱가포르 국제영화제 등에 초청돼 상영됐다. 세월만큼 더 깊어진 시선, 삶과 죽음, 사랑과 번민이라는 보편적인 감정과 공감, 시대와 소통하는 감각적이고 세련된 프로덕션으로 격조 있는 작품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장병호기자

영화로 재탄생한 베스트셀러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2월 개봉

전 세계 1억 판매 부수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화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다음달 26일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CEO이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크리스천 그레이와 아찔한 사랑에 빠진 순수한 여대생 아나스타샤의 본능을 깨우는 파격 로맨스를 그리는 영화다.

여성 작가 E. L. 제임스가 쓴 원작 소설은 지난 2012년 출간돼 '트와일라잇' '해리포터' '다빈치 코드' 시리즈를 뛰어넘은 최단기간 판매 기록을 세우며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전 세계 1억 판매부수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시리즈가 됐다.

영화는 여성 감독 샘 테일러-존슨과 '세이빙 미스터 뱅크스'의 각본을 맡은 여성 각본가 켈리 마르셀 등 여성 제작진의 조합으로 완성됐다. 주인공 그레이 역은 조르지오 아르마니, 크리스천 디올, 캘빈 클라인 등의 모델로 유명한 섹시 스타 제이미 도넌이 맡았다.

/장병호기자

2015 호주 아시안컵 출전을 앞둔 미란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 외 선수들 연합뉴스

태극전사, 결전의 땅 밟다

슈틸리케 감독 "사우디 평가전 승리로 사기 상승"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15 호주 아시안컵의 조별리그 결전지인 캔버라로 6일 오전 이동했다.

선수단은 숙소인 켈룩 호텔에 여장을 풀고 현지의 디킨 스타디움이나 맥켈라 파크에서 훈련에 들어간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A조에 편성됐다. 10일 오만, 13일 쿠웨이트, 17일 호주와 조별리그 1~3차전을 치른다. 캔버라에서는 오만, 쿠웨이트와의 대결이 펼쳐진다.

숙소와 훈련장, 경기장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간은 20분 내외다. 선수들이 이동에서 불편을 느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슈틸리케 감독은 선수들은 물론 자신의 사기도 높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최악의 전반전을 딛고 후반에 많이 회복됐다"며 "핵심요원이 빠진 상태로 완전한 전력을 갖추고 나온 상대를 꺾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사우디와의 평가전에는 기성용(스완지시티), 이청용(볼턴), 차두리(FC서울)가 결장했다.

선수들의 몸 상태는 대부분 양호한 편이다. 다만 차두리는 무릎의 가벼운 부상으로 물리치료와 휴식을 통한 재활에 힘을 쏟고 있다. 다리 근육통으로 훈련에 차질을 빚은 골키퍼 정성룡도 치료를 마치고 정상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소속 클럽 경기 일정으로 동료보다 늦게 대표팀에 합류한 기성용, 이청용도 컨디션을 순조롭게 끌어올리고 있다.

/정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배상문·노승열 새해 첫 PGA

현대토너먼트… 일본 기대주 히데키도 출전

배상문(29·사진 오른쪽), 노승열(24·나이키골프·왼쪽)이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2015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첫 샷을 날린다.

두 선수는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카팔루아 골프장(파73·7411야드)에서 열리는 현대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 출전한다.

이 경기는 2014년에 우승한 선수들만 나올 수 있는 대회다. 상금 570만 달러에 우승상금 114만 달러가 걸려있다. 30여명의 선수만 참가하는 대회지만 플레이오프 출전권이 달린 페덱스컵 우승 포인트도 다른 대회와 마찬가지로 500점을 준다.

노승열은 지난해 4월 취리히 클래식에서 우승했고 배상문은 지난해 10월 프라이스닷컴 오픈에서 우승해 이번 경기 출전권을 갖게 됐다.

그러나 배상문의 심경은 그리 좋지만은 않다. 병무청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가 통보에 따라 이달 안에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배상문은 미국에서 최대한 활동하겠다는 마음을 정하고 이번 주 대회에 출전을 신청했다.

배상문에게 이번 대회는 두 번째다. 2013년 바이런넬슨 챔피언십 우승으로 2014년 현대토너먼트에 출전해 공동 21위에 올랐다.

노승열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지난해 PGA 투어에서 생애 첫 승을 올리며 세계골프계의 주목을 받은 만큼 새해에는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본 골프의 기대주 마쓰야마 히데키도 출전한다. 한국과 일본의 영건들이 벌이는 샷대결도 이번 대회의 관전 포인트다.

톱 랭커들이 나오는 일은 드문 대회지만 이번 대회에는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두 차례 제패한 세계랭킹 4위 버바 왓슨(미국)이 출전한다. /정병호기자

바르셀로나, 부진 속 극심한 후폭풍

6일(한국시간) FC 바르셀로나와 계약이 해지된 안도니 수비사레타 단장. AP뉴시스

부진과 국제축구연맹(FIFA)의 제재로 위기에 처한 스페인 프로축구 강호 FC바르셀로나가 후폭풍을 제대로 겪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6일(한국시간) 안도니 수비사레타 단장과의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수비사레타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바르셀로나 골키퍼로 활약한 이 팀의 전설 중 한 명이다. 스페인 대표로도 126경기에 출전한 바 있다.

바르셀로나는 "회장은 구단의 이름으로 지난 4년 동안 수비사레타가 축구 분야 수장으로서 보여준 기여와 헌신, 프로 근성에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비사레타는 2010년부터 바르셀로나 단장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바르셀로나와의 계약을 2016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바르셀로나는 수비사레타의 경질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최근 바르셀로나의 부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크다.

바르셀로나는 지난해 메이저대회 우승컵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수비 강화에도 실패했다. 지난 여름 브라질 출신 수비수 더글라스 페레이라와 벨기에 수비수 토마스 베르말렌을 데려왔지만 페레이라는 선발로 쓸 만한 기량이 아니었다. 베르말렌은 지난달 햄스트링 때문에 수술을 받아 4개월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라이벌인 레알 마드리드에 밀려 2위를 달리는 등 부진을 겪고 있다. 그러나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하는 FIFA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1년 동안 선수 영입이 금지되는 등 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수비사레타의 경질 발표 이후 한 시간 뒤에는 카를레스 푸욜의 사퇴 소식도 전해졌다. 푸욜은 지난해까지 바르셀로나 주장으로 활약하며 수비사레타를 보좌해 구단 일을 보고 있었다.

푸욜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다른 관점으로, 다른 곳에서 색다른 일을 경험해보고 싶다"며 "인격적, 일적인 면에서 모두 성숙해져서 언젠가 이 집으로 돌아와 제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을 안겨준 분들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병호기자

"FIFA 발롱도르賞에 노이어"

마라도나, "호날두·메시보다 더 자격있다"

디에고 마라도나(55) 전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이 독일 국가대표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29·바이에른 뮌헨·사진)가 올해 국제축구연맹(FIFA) 발롱도르 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FP 통신은 6일(한국시간) 쿠바를 방문 중인 마라도나가 "리오넬 메시도 아니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아니다. 노이어가 올해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선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TV 방송국의 프로그램 촬영차 5일 쿠바를 찾은 마라도나는 쿠바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호날두와 메시는 지난해 사실상 쉬었다. 노이어는 독일을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FIFA 발롱도르는 세계 최고 권위의 축구상이다. 올해 최종 후보로는 노이어, 메시, 호날두 세 명으로 압축됐다.

수상자는 FIFA 회원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 기자단 투표로 선정된다.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투표 결과가 공개된다. /정병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6일

전자랜드	22	13	21	24	80
동부	19	13	19	25	75

프로배구 전적 6일

현대캐피탈	3	0	우리카드
흥국생명	3	0	GS칼텍스